

눈, 눈, 눈





#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 1. -나쁜 놈- 김판주의 집 / 거실 - 지도 INT. N

화면 가득 지도가 펼쳐져 있고 신나는 오프닝 음악이 흐른다.  
 빠른 속도로 빨간 화살표를 따라 가다 어느 지점에서 멈추면 총구멍이 뿜상 나고, 칼이 부  
 뒤틀리는 그림들이 보이거나, 지도 위에 표시된 어떤 지점에 폭발이 일어나며 메인 스텝과 주  
 요 배역들의 크레딧이 뜬다.  
 화살표는 계속 달리다가 마지막 발동 표시 위치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마지막 크레딧이 드  
 린 활자를 내리치는 소리에 음악이 울아 이웃 되고 화면 바뀌어 배판자본가 김판주의 거실이다.

김판주 : (탁자를 내리치며) 이 사람, 정신 놓지 말라니까!  
 박서방 : 아...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김판주 : 하여튼 자넨 지금 당장 금융장에 묵고 있는 가네마투상에게 이 지도를 건네주고  
 가네마투상이 건네주는 돈만 받아오면 돼.  
 박서방 : 일본의 동양은행 총수 가네마투상 말입니까?  
 김판주 : 그래.  
 박서방 : 가네마투상이 이 지도를 찾는 걸 보면 이게 엄청난 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판주 : 어허, 글세, 그 놈의 임박정!! 어디서진 이 지도를 봤느니 어쨌느니 입을 잘못 놀  
 리는 날엔 큰 변을 치를 걸세. 자넨, 이 지도를 찾아도 못 본 거나 마찬가지야.  
 박서방 : 아이고 엄러 놓으십시오. 전 봤어도 못 본 겁니다.  
 김판주 : 마적단들이 누대세끼를처럼 몰려오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알겠나?  
 박서방 : 글세, 엄러 놓으십시오. ( 지도를 받아 쟁겨놓고 ) 제가 누굽니까.  
 흥 하니 다녀오겠습니다.

꾸벅 절을 하고 거실을 나서는 박서방을 다시 불러 세우는 김판주.  
 김판주 : 명심해! 이제부터 자네한테 지도는 찾아도 못 본 거고 있어도 없다고 생각해야 하  
 네. 알겠나?  
 박서방 : ?? 아 ... 아 그럼요 전 지도를 찾아도 못 본 거고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알듯 모를듯 한 김판주의 말을 생각 없이 주워 담고 고개를 조아리며 나가는 박서방.  
 2. 김판주의 집 / 서재. INT. N

박서방을 배웅하고는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들어가면 누군가 의자에 깊숙이 앉아있다.  
 의자 밑으로 펼쳐진 코드 자락과 의자 팔걸이에 올려 있는 검은 장갑이 인상적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큐빅을 천천히 맞추고 있다.

김판주, 누가 들을세라 문던도리를 하며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김판주 : 지도는 가네마투에게 넘길 걸세. 가네마투가 지도를 가지고 제국열차 간도신을 타  
 고 연해주로 갈 거야. 자네는 만주 벌판 어디쯤에서 기차를 세우고 가네마투한테서  
 이 지도를 다시 빼앗아오면 그걸로 끝일세. 우린 가네마투한테 돈도 한 몫 챙기고  
 도로 지도도 찾고 만사형통이지. 만주군들이 호위를 할 거야.  
 각별히 조심해야 할 걸세.

소리 : 걱정 되십니까.  
 김판주 : 걱정은 무슨 .... 내가 자네 실력을 몰라서 염려하겠나? 그저 이 지도 때문  
 마적단들은 물론이고 내놓으라는 총잡이 칼잡이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 게 번갈  
 것 같아 그런 거지. 만주에서야 자네가 최고 아니겠는가?  
 소리 : ..... 만주에서.....  
 김판주 : ? ..... ( 말실수했다고 생각하고는 ) 하하하 만주 최고가 대륙 최고 아니겠는가?  
 소리 : .....  
 김판주 : ( 서둘러 품에서 든 한 통치를 꺼낸다 ) 자 자 내가 표현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  
 기분 풀고 이것 먼저 받아 두게.  
 소리 : 놔 두십시오. 돌아온 후에 받겠습니다.

코트의 사내, 천천히 일어나 다 맞춘 큐빅을 내려놓고 글라스에 있던 술 한 잔을 벌컥 들이  
 키고는 느릿한 걸음걸이로 나간다.  
 김판주, 그동안 참았던 긴 한숨을 내린다.

## 3. -좋은 놈- 어느 식당. INT. N

중곡 마적 일행들이 각종 고기들을 푸짐하게 쌓아놓고 재결스럽게 먹고 있다.  
 좋게 보이는 마적 하나가 장판을 두드리면 그것이 신호인 양 마적 두부는 같이 하나를 입  
 으로 뜯으며 일어난다.

## 4. 헛간 안. INT. N

마적 두목, 헛간으로 들어서면 한 일본 여자가 머리에 봉지가 씌워지고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몸부림치고 있다.  
 마적 두목 허리춤에서 칼을 꺼낸다.  
 지저분한 트럼펫을 길게 한 번 하고 반면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  
 러든다. 일본 여자, 반항해 보지만 그림수북 옷만 더 찢겨 나간다.  
 일렬엔 개기름이 흐르고 입가엔 고기 찌꺼기들을 더덕더덕 물인 채 여자를 구석으로 몰아붙  
 이는 마적두목.  
 치마를 올리려고 손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녀가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에 신경이 갔지만 무시했는데 뭔가 계속 아작아작 하는 소리  
 가 옆에서 들리는 것 같다.  
 마적두목, 고개를 들어보면 현상금 사냥꾼 도원이 건넌 구석에서 땅뽕을 까먹으며 그들을

기차에 치어 죽은 조그만 사체를 놓고 이놈들이 남개를 푸닥거리며 싸우고 있을 때, 그 고기를 초스피드로 넘어가려는 두수린인지 매인지를 따라 다시 카메라를 돌려본다. 채찍을 타고 울려 퍼지는 채찍소리에 옆으로 패딩하면 채찍을 돌아 모습을 보이는 것스런 중기기관차. 검은 연기를 평평 토해내며 다가오는 기차에 까마귀들은 흩어져 날아가고, 기차저항을 타고 검은 연기를 헤치며 달리는 카메라. 멋진 자연 풍경을 보여주며 달리던 기차는 검은 굴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8. A. -이상한 불- 기차내부 / 삼등칸 ~ 화장실. INT. D

매판을 뒤에 걸고 객실을 걸어가는데 한 남자의 동이 보인다. 3등석 칸에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몽골인 등 모두가 가난하게만 보이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크고 작은 낡은 짐 보따리와 가방, 패치 등... 피난철차 같은 이수라정이다. 그런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며 계속해서 전진하는 한 남자, 이상하기 까지 한 다국적 사람들의 모습. 그의 인종은 없는 듯하다. 창가 좌석에 앉아서 가슴을 추스르는 창부와 잠시 눈이 맞아 농밀한 눈빛을 받지만 그것도 남자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흡사 주인공 등만 보이는 1인칭 오락게임처럼 전진하는 사내. 기차 칸과 칸 사이에 있는 화장실 구간에 다 밟았을 때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며 조선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며 만세를 외치려다 서넛의 만주 경찰들이 덮치며 화장실로 외곽으로 끌어내려 버린다. 단숨에 만주 경찰들에게 진압당하는 청년. 하지만 매판을 맨 사내,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난장판인 화장실 구간에 부드럽게 빠져나간다. 초현실적이라 느낄 정도로 치열한 생의 균형을 사이를 계속 전진하는 사내.

8. B. 기차내부 / 이등칸. INT. D

서로의 일에 관계하고 싶지 않은 피곤한 얼굴들을 지나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복장과 여유롭게 보이는 군상들이 나타난다. 그 통로를 어서 지나가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할 때 가족 코드 차림의 누군가 일어나 매판을 걸머진 남자의 어깨를 톹 치며 지나간다. 매판의 남자, 잠시 서서 뭐지? 하는 표정으로 있다가 그냥 다시 앞으로 걷는다. 한 일본인 신사가 매판의 음식에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지만 대꾸하지 않자 일어설려 할 때 그 신사의 어깨를 톹 누르며 도로 앉힌다. 또다시 1인칭 오락처럼 전진하는 남자.

8. C. 기차내부 / 일등칸 앞. INT. D

드디어 다다른 마지막 칸은 객실이 따로 되어있는 일등칸이다. 마지막 칸 문을 활짝 열자. 만주정부가 몇 명이 힘약한 인상으로 매판의 남자를 일시에 쳐다본다. 그 건너편으로 만주 정부군 장교와 몇몇의 화류계 중국 일본여자들, 일본 상류층 사람들이

보고 있다. 미친 두목, 초스피드처럼 별벽 일어나 활을 쏜다. 도원은 상관하지 말고 하던 것 계속 하라며 땅콩 껍질을 후루 뿌린다. 그 포스에 만만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기가 꺾일세라 표창을 쬐! 도원에게 던진다. 정확히 도원의 머리 옆에 벽에 박힌다. 식집한 표정의 도원. 미적 두목, 이번엔 단리를 물어 던지려 할 때 두 손을 들어 울리며 항복 싸인을 보내더니 친 친히 일어나 뒷걸음치며 나가는 도원.

5. 헛간 앞. EXXT. N

보초를 서 있던 출개 두 명, 도원이 나오자 어안이 병병하다. 도원, 다하고짜 그들에게 현상금 붙은 창이 포스터를 보여주며 이 자를 아느냐고 물어본다. 출개들이 기억을 더듬으며 이거 창이 같다고 한다. 다시 이 동네에 나타났냐고 물어보면 며칠 전부터 창이파 애들이 술집에 나타났다고 대답한다.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다시 들어가는 도원.

출개 1 : (중국어) 저거 뭐야?

출개 2 : (중국어) 같이 하나?

출개 1 : (중국어) ...셋이서? ..... 근데 창이를 찾자나 ....

출개 2 : (중국어) 그럼 ..... 넷이서?

출개 1 : (중국어) 어으

그러다 갑자기 안에서 들리는 총소리. 기집하는 출개를, 총과 칼을 꺼내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 입거부 들리는 총소리. 방방. 잠시 뒤 바블거리며 출개 1이 북부를 움켜쥔 채 나오다 꺾히고 쓰러지면 도원 땅콩을 아작 아작 씹으며 나오며 주의를 둘러보다 출개1의 발을 들어 헛간 안으로 칠칠 끌고 들어온다.

6. 헛간 안. INT. N

여자, 놀란 토끼 표정을 지어보이며 웃을 추스르더니 도원의 눈치만 본다. 도원이 나가도 괜찮다고 고갯짓하니 후다닥 뛰어나가는 여자. 시체 셋을 나란히 늘어놓고 품에서 한 움큼의 현상금 포스터를 꺼내 일일이 일괄과 포스터 봉타추와 비교한다. 이들의 현상금액을 손가락으로 계산하더니 얼마 안 되자 미간을 찌푸린다. 이때 어디선가 날카롭게 울리는 매의 울음소리에 도원, 빠르게 총을 카메라로 겨누면.

7. 기차 & 철로 / 별판 위 - 채찍, 터널. EXXT. D

하늘 꼭대기 두수린지 맨지 한 개의 점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 지상의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강하는 두수린지 맨지를 따라 카메라가 내려오면 만주행단철도가 보이고, 철길을 따라 풀러서면 철길 사이에 동물사체와 세 마리의 까마귀가 보인다.

터서러한 분위기로 앉아있다.

민주정부군들의 기세에 놀린 듯 매편남자 뒷걸음치며 도로 나온다.

카메라도 뒷걸음치며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남자를 추시하고 있다.

남자는 매편의 음식 하나를 집어 입에 넣어 오물거리고 매편은 던져 버린다.

카메라, 남자의 손을 따라 얼물로 올라가면 굵고구마 모자를 풀어 귀밑으로 내리더니 턱에

푸는듯 입술이 드러난다.

조선인 열차들이벌 운태구다.

아까 무시당한 일본인 신사가 쉐색거리며 오다가 태구가 총에 실란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는 핏끔히 자기 잔으로 돌아간다.

태구는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우물거리며 객실 쪽으로 힐끔거리며 조심스레 확인한 후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선다.

우물우물 입에 짝 찬 음식을 씹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처럼 몇 번 호흡을 고른다.

덜덜떨떨 쉬지 않고 달리는 기차소리가 오히려 푸퉁전야처럼 처막한 느낌을 주는 가운데

기차가 또다시 어두운 굴속으로 들어가면.

떠오르는 제목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가계)”

## 9. 기차내부 / 일동칸. INT. D

문을치고 들어가는 태구. 쌍권총을 발사하고

객실 안에 있는 민주정부군들, 총도 꺼낼 시간도 없이 모두 착살난다.

명사수처럼 완벽하게 처리하고는 다시 침착하게 나의 재장전 후 다시 뛰어 들어가 총을 거

누런 객실 안에 있던 사람들 기질을 하고 권총을 겨누는 채 여전히 음식을 가득 들고 우물거

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태구.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명 하게 쳐다보다가 총부리를 휘휘 짓는 태구.

여인들은 나가라는 이야긴 줄 알고 일어서 나가려 하지만 다리를 벌리고 책 막아서더니 무

여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여전히 남자들을 향해선 총을 겨누고 있다.

주호진중국대장 : (중국어) 너 누구야 내가 누구지 알고 지금 이러는 거야?

태구, 조용히 하라는 신호로 우물거리는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니 조용해진다.

태구 : 도성할 왔어...!

입에 음식이 가득 차서 뭘 말인지 알 수 없는 태구의 말...!

여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더 두려움에 떨고 태구의 음식을 씹는 턱놀림은 더 빨라진다.

어느 정도 입안에서 정리가 되었는지.

태구 : 조선말을 할 줄 알아? 몰라?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 남의 나라 먹올라면 그 나라

말 정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냐. 기분이 안 돼 있어. 이 새끼들은.

또박또박한 태구의 목소리에 다시 조용해지는 객실.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말을 모르는 듯한 분위기가 흐르자 커뮤니케이션을 포기하고 그들의

짐을 꺼내라는 바다 행커지 신호로 바꾸는 태구.

탁탁 바닥에 쌓이는 그들의 짐.

태구, 한 여인을 확 떠밀면 여인 가방 앞에 주저않는다.

여인이 태구를 돌아보면 턱으로 열라는 신호를 준다.

태구를 등지고 가방을 여는 여인, 약간의 혼과 보서 장신구들이 나온다.

씨의 기분이 좋아지는 태구, 괜시리 어깨동무하고 있던 여인을 짝 안는다.

두 번째 가방을 열라고 신호를 주는 태구.

그 여자, 망할인다.

이 때 한 일본인 신사가 유난히 긴장하는 표정을 짓는다.

태구, 팔리 열라고 하자 여자는 거의 울상이 되어서 일본인 신사를 슬금슬금 쳐다본다.

일본 신사와 여자의 시선교환을 놓치지 않는 태구.

태구 : 어이, 이거 네꺼야? (일본인 신사 못 들은 척 한다) 어이 아저씨!

일본인 신사가 계속 못 들은 척 하자 태구의 총에서 쨌리 장전레버 명기는 소리가 난다.

여자를 기겁을 하고.

태구 : 어이 이리 와 봐.

주호진 : (중국어) 그만 뒤! 그 분이 누구신지 아냐? 대일본의 동양은행 총수이신 가네마루

상이다.

태구 : 가네마루? 가네마루건 가마테기진 이리 와 봐.

가네마루 조심스레 가방 앞에 신 채 가방으로 시신을 옮기면 가방 안 지도와 각종 기밀문서

들 사이로 권총이 숨어있다.

물론 태구는 보지 못한 상태... 가방 앞의 여자, 점점 호흡이 가빠오고.

기묘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가네마루, 여자에게 총을 집으라는 눈치를 준다. 여자는 점점 더 숨이 가빠와 돌아버리기

일보죄전이다.

태구, 뭔가 이상한 기운이 들고 있다고 느낀다.

여인, 조심스레 가방 속에 손을 넣으면, 이상한 기운을 느낀 태구, 허로 잇몸의 움직여끼기

를 알아내려는 듯 혀 차는 소리가 난다.

여자는 조심스레 권총을 꺼내기 시작하고...

갑자기 참지 못한 중국인 장교 소리를 지르며 여인에게서 총을 뺏으려 달려드는 순간.

끼이이익

브레이크 잡는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넘어지며 객차 불이 켜지고 꺼지면서 어둠 속에서 타

당탕 딸 딸 불을 뿜는 권총.

## 10. 기차 & 쉼터 / 별판 위. EXT. D

스파크를 튀기는 테이블과 기차 바퀴, 멈추려 안간힘을 쓴다. 거세게 기차가 다가오는 가운데 테이블 위에서 서 있는 한 사내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김판주의 서재 의자에 앉아 있던 그 폰코트와 검은 장갑의 사내다.

스파크를 튀기며 다가오는 기차와 폰코트를 펼쳐이며 서있는 사내는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듯 멧진 장면을 연출해낸다.

기차는 간신히 폰코트 심여 미터 앞에 멈추어 선다. 긴 줄기를 뿜어내며 완전히 정지하는 기차.

그럼 폰코트 입은 사내 하나 때문에 기차가 섰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때 쯤.

폰코트 사나이 뒤로 테이블 위에 폰나무가 쌓여 활활 타고 있는 장판이 펼쳐진다.

라시아 기관사가 뛰어내려 뒤라 뒤라 외치며 다가오면 개각쟁각 관중이 총알을 집어넣는 폰코트. 장이다.

러시아 기관사, 잠시 멈춰서다 놀라 뒤돌아 도망칠 때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등에 총을 맞고 나가떨어진다.

그 총소리를 신호로 철로 통산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이의 부하들 일시에 말을 몰아 한 무리째 패를 나누어 산통생이를 담어와 각 칸에 올려놓는다.

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위스키 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입을 뒤아내더니 천천히 걸기 시작한다.

11. 기차내부 / 일동칸. INT. D

태구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나오고 어깨동무하고 있던 여자와 엉켜 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일련한 얼굴의 태구.

객실은 어깨동무 여인을 पी고 모두 죽어있다. 사체를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태구와 어깨동무 여인.

어깨동무 여인이 뱀 나간 표정을 지어보이자 태구, 정신 차리라는 듯 불뿔기를 한 대 찌게 올려볼이던 여인, 울음을 터트린다.

그때 우르르 기차 안을 통풍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 태구,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여인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인다.

조용히 반대쪽 문으로 나가라고 총구를 까딱대면 다리에 힘이 풀려 페그리피그덕 도망치는 여인.

태구, 죽은 시체들의 옷가지 안에서 금품을 꺼내 가방에 집어 넣는다. 옆을 보다 죽은 여자의 미끈한 다리에 시선을 빼앗긴다.

태구의 손이 여자의 팬티 안으로 스숙 들어간다. 빈대 같은 표정을 지어보이며 흡족해하는 태구.

손을 꺼내자 다량의 반으로 묶은 지폐가 들려 있다. 다음 차례는 가네마루.

12. 기차내부 / 이동칸. INT. D

이것저것 개념 없이 약탈 중인 폰코트 장이의 부하들.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고, 닭

이 날아다니고 개가 미친 듯이 짓고 비명에 여러 나라 목소리에 간간히 위협적으로 발사하는 총소리로 이수라장이다.

장이와 부하 쌍갈이 들어온다. 그 꼴을 보던 쌍갈, 부하들에게 조선말과 중국말로 가네마루부터 찾으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장이는 상관 안한다는 푸르 터벅터벅 앞서서 걸어간다.

13. 기차내부 / 이동칸. INT. D

죽은 일본인 가네마루의 옷부터 뒤지기 시작하는 태구. 밖에서 가네마루부터 찾으라는 소릴 듣고 멈춰선다. 그때 가네마루의 가방이 머리맡 스쳐간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가방을 찾는 태구. 서투른척과 지도가 나온다.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의 태구.

그때 여인의 쫓아지는 비명소리 들리고.

14. 기차내부 / 삼동칸. INT. D

아까 태구가 매판을 들고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친 창부여인이 장이의 부하1에게 가방을 찌기지 않으려고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고 있다.

힘껏 잡아당기는 장이의 부하1. 안간힘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창부.

갑자기 가방이 열리며 장이의 부하는 뒤로 넘어지고 내용물이 얼굴로 쏟아지는 데 별 것 아닌, 그것도 할지 않아 누린 여인의 속웃음...

장이부하1, 화가 나서 속을 찢으며 일어서려는데 막 관자놀이에 와서 닿는 차가운 총구. 창구를 따라가는데 이게 엄청 길다.

죽 벌은 창구마냥 죽 벌은 펌시의 가족 복장의 사내. 아까 태구의 매판과 어깨를 부딪치며 급하게 나가던 사내다.

작업은 사상꾼이지만 날짐승 뿐 아니라 인간까지 사냥하는 현상범 사냥꾼 도원.

도원 : (중국어) 장이 어딤나.

관자놀이에 창구가 닿아 끔찍 못하는 창이부하. 그래도 눈길은 돌아간다. 건너편 차리, 빨간 불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중국 꼬마와 눈이 마주치는 창이부하1.

또 눈길을 돌려본다. 아까 창부의 가방에서 나온듯한 거울이 앞에 놓여 있다.

도원에겐 보이지 않는 절묘한 위치. 거울을 통해 자기편인 창이부하2가 뭘 일인가 싶어 쳐다보는 것이 보인다.

도원에겐 사각지대인 자신의 엉덩이 쪽에 가 있는 손으로 수신호를 보내는 창이부하1. 엉덩이 쪽에서 경박스럽도록 빠르게 움직이는 손짓.

어느 정도 보냈을까 창이부하2도 상황을 파악한 듯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창이부하1의 수신호는 클라익스에 탈해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갖는 시늉을 하는 순간.

펑! 하는 엄청난 총성과 함께 반동으로 장총의 개머리판이 유리창을 쳐부순다.

측사하는 창이부하1과 임장난 속도로 일어나 단발라이플에 총알을 재장전하고 창이부하2를 향해 조준장세를 잡는 도원.  
빠르고 정확하고 안정된 3박자가 갖추어져 멋진 모습이 연출되는 순간 두 번째 총성일 울 리고 창이부하2가 몸이 붕 뜨더니 그의 머리가 창문을 박살낸다.  
정확한 헤드샷.

15. 기차내부 / 이동칸 ~ 삼등칸 쪽 문. INT. D

북이하고 강력한 총성에 이상함을 느낀 창이.  
같이 있던 부하 3에게 가보라고 지시하며 이동칸을 향해 터버티브 걸여간다.  
창이부하3, 총직한 개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총을 들고 신나게 도원의 총성이 들린 쪽으로 달려가 삼등칸 좌자 문을 여는 순간.  
도원의 세 번째 총성이 작렬하며 뒤로 나자빠진다.

16. 기차내부 / 이동칸. INT. D

예사 총소리가 아닌 것에 놀란 태구. 서둘러 물건들을 챙기며 건너편 좌실의 동태를 살 피다가 창이파들의 뒷모습을 보고 얼른 고개를 내민다. 인상을 찌푸리며 피곤한 일 생 겠다는 표정.

17. 기차내부 / 삼등칸. INT. D

보일러 뒤에 기대어 몸을 숨긴 채 거울을 들어 비추어 보는 도원.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자세히 보니 창이의 지시를 받은 창이부하4, 꼬마를 방패삼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꼬마를 앞세워 도원이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고 야비하게 이동 중이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들어온 바람에 창이부하4의 모자가 날아간다.  
창이부하4, 바보스럽게 날아가는 모자를 나비처럼 보듯 시선이 따라가고.  
시아를 가리며 날아가던 모자, 휘 빠져나가면 화들짝 놀란 부하, 꼬마를 꼭 앞으로 밀어내 고 객차 안을 살핀다.  
식은땀을 흘리는 부하4.  
정적과 긴장감.

그때 창문 쪽에서 빛이 반짝이는 것 같더니 뭔가 기다란 작대기 같은 게 천천히 들어온다.  
그게 튀기 하는 순간.  
팍!!  
부하4 눈가에 스쳤는지 비명과 피함을 지르며 창문 쪽을 향해 총을 난사하러 든 창이, 기차 밖 창문에 매달려 있다.  
부하4 무차별하게 쏘아대는 바람에 커튼이 풍풍 구멍을 내며 도원의 얼굴 앞에서 경신없이 나부끼는 가운데 거울 반사로 창문 안으로 집어넣고 침착하게 총을 발사한다.

18. 기차내부 / 이동칸 앞. INT. D

이동칸 앞까지 다다른 창이와 쌍칼 그리고 부하.  
그러나 풍풍 달려 있는 이동칸.

19. 기차내부 / 이동칸. INT. D

창이, 이동칸 문 앞까지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흠친 물건들을 자투에 정돈하며 몸에 하나씩 단단하게 묶고 있다가 문소리에 놀라는 태구.

20. 기차내부 / 이동칸 앞 ~ 이동칸. INT. D

창이가 쌍칼 보고 비키라고 하더니 문 쪽에다 대고 총을 서너 방 갈긴다.  
문을 꽂아 하고 쫓히면 준비하게 피범벅이 되어 누워있는 시체들. 태구는 보이지 않는다.  
가네마루 발견하고 황급히 다가가 옷가지들 뒤져보는데 누군가 다 털어갔음을 알고 인상을 찌푸리며 뭔가 심하게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창이.  
별책 일어나 다시 앞 칸으로 가보라고 쌍칼에게 지시한다.  
쌍칼이 조심스레 앞 칸을 향하고 있을 때 다시 멀정하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창이의 쌍칼, 놀란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더니 기판실로 달려간다.

21. 기차 & 켈토 / 별판 위. EXT. D

천천히 출발을 시작하는 기차는 창이 일당이 쌓아놓은 불타는 풍나무 더미를 밀어내기 시작 한다.

22. 기차 / 기판차. INT. D

기판실까지 도망 온 여자를 비키라고 한 뒤 해버를 있는 데로 재끼는 태구.  
폐애향 기판차는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한다.

23. 기차외부 / 객차지붕. EXT. D

창문에 매달려 있던 도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제때론 동작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 한 칸을 건너면 창문을 통해 가볍게 다음 객차 안으로 들어온다.

24. 기차내부 / 이동칸. INT. D

도원이 주의를 돌리려보다 몸을 이동칸을 향하여 돌릴 때 짐 의자에 몸을 숨기고 있던 창이부 하 창이 슬며시 일어나서 삼등칸 쪽을 주시한다.  
서로 등을 진 채 앞만 주의 깊게 바라보는 두 사람.

25. 기차 / 기판차 ~ 별판 위 ~ 창문가. INT. D

기판실에 당도한 장이.  
여자 하나만 울며거리며 밖으로 손짓을 한다.  
손짓을 따라 장부를 내다보면 장이 시점으로 저 멀리 태구가 도망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장이, 장총을 들어 정조준, 발사한다.  
총알은 태구의 도자 꼭대기 방울을 정확하게 맞춰 날려버린다. 식집하는 표적의 태구.  
더욱 열심히 팔다리를 죽을힘을 다해 휘젓는 태구.  
격발음을 들었는지 재차 창문으로 누군가의 머리가 쭈 나오는데, 도원이다.  
셋의 운명적인 첫 만남.

31. 언덕 위 / 원경 숏. EXT. D

밀어치는 장이의 기차.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태구. 반격을 하며 총은 뒤쪽으로 쏘면서 마치 태구를 쫓아가는 듯한 기묘한 풍경을 연출하는 세 사람을 밀리서 내다다보는 다국적 마작단 인 삼국파. 그런데 기차길 옆 언덕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태구와 도원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부하 하나가 중국인 투목인 장취에게 망원경을 가져다준다. 망원경 시점으로 태구, 도원, 장이, 오토바이를 번갈아본다.

장 취 : (중국어) 야 병춘.  
병 춘 : (중국어) 네.  
장 취 : (중국어) 저게 어떤 상황 같나?  
병 춘 : (중국어) 음 .....  
장 취 : (중국어) 설명 못하겠지.  
병 춘 : (중국어) 네.  
장 취 : (중국어) 그럼 지도는 누구 손에 있는 것 같나?

병춘, 망원경을 들어 다시 보더니.

병 춘 : (중국어) 제 생각엔 ..... 맨 앞에 달려가는 놈 같은데요.

장 취 : (중국어) 아는 놈이나?

병 춘 : (중국어) 네. 조금 압니다.

장 취 : (중국어) 그럼 잡을 수 있겠네.

병 춘 : (중국어) 그렇게 잘 알진 않습니다.

장 취 : (중국어) 그래도 잡아와야지.

병 춘 : (중국어) 네.....

장 취 : (중국어) 저기 쫓아가는 놈은?

병 춘 : (중국어) 소문만 들었습니다. 원래 백두산 쪽에서 짐승 잡고 하던 놈인데 지금은 원 상금 사냥꾼입니다.

장 취 : (중국어) 귀찮은 놈이네. 저놈은 그냥 없애버려.

병 춘 : (중국어) 네.

장 취 : (중국어) 저기 오토바이는? 니 친구 아니냐?

병 춘 : (중국어) 네 ... 그런데 지금은 아님니다.

32. 기차 & 첩로 번. EXT. D

계속 달리는 태구와 도원.

서로 흘깃 놀라며 동시에 총을 꺼내 서로 쏘는 도원과 장이.  
총소리에 기겁하던 태구는 자기 쪽으로 쏘는 총알이 아니라는 걸 눈치 채고 윗몸 뒤를 보며  
니 서서히 스피드를 줄인다. 자기들끼리 싸우나? 하는 영문을 몰라 하는 표정.  
그러면서 점점 아까와는 달리 아주 느긋하고 가벼운 몸 풀기처럼 된다.

26. 기차 & 첩로 / 별판 위. EXT. D

27. 기차내부 / 이동칸. INT. D

기차 안으로 다시 몸을 숨기며 총을 재장전하고 있는데 품이 도원을 겨누고 있다.  
놀라서 멈춰서는 도원.

폼 : (일본어) (도원을 노려보다가) 혹시 ....가...네머루씨?

28. 기차 / 기관차. INT. D

창이도 몸을 숨기고 총을 재장전 하며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

창 이 : 저 놈은 뭐야? 야 기차세워.  
..... 기차 세우는거 몰라?

창이도 폼을 해야 되는지 난감해 하고 있을 때 화장장 창문이 부서지는 소리.

29. 기차 & 첩로 / 별판 위. EXT. D

도원이기 창문을 폼으로 부서며 뛰어내려 땅 위로 구른다.

도원을 향해 총을 쏘아대는 폼. 창이도 얼른 총을 집어와 총을 쓴다.  
도망가면서도 반격을 하는 도원.  
도원도 역시 떨어진다.

30. 기차 & 첩로 번. EXT. D

9



인되었는지 달리면서 흉을 꺼내 쫓아오는 도원을 향해 흉을 쓰는 태구.

도원도 태구가 쏘자 같이 응사한다.

도원의 강력한 라이플이 땅 소리를 내면 태구 들고 가던 가방이 날아가며 손잡이만 남는다.  
기겁하는 태구.

오토바이가 먼지를 일으키며 태구 앞에서 급하게 커브를 틀어서면 태구 옆자리에 짹짹  
울라탄다.

만길 : 저 놈 뭐예요?

태구 : 몰라. 그냥 무시하고 가. (엄지결에 톨고 뛰어난 가방 손잡이를 휘 내던진다.)

만길 :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난 저 위에서 왜 안 오나 하고 한참 기다리다 온 거에  
요.

태구 : 아 그렇게 됐어.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게.

도원, 쫓다 말고 멈춰 서서 떨어지는 오토바이를 바라본다.

몸에서 현상음 포스터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태구 포스터를 꺼내 액수와 일몰을 봐  
인한다.

다시 품안에 집어넣고 쯤 전 창이 부하들이 버리고 간 말뚝 쪽으로 가 그 중 한 파리에 울  
라타 말머리를 들리더니 힘차게 어디론가 달려간다.

33. 언덕 위 / 원경 송. EXT. D

창이, 도원, 오토바이가 각각 삼각형을 이루며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삼국파.  
망원경을 내려놓고.

장 취 : (중국어) 행동개시 해.

34. 식당 겸 여관 / 식당 안. INT. D

한쪽 구석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 태구와 만길.

태구는 열심히 국밥을 떠 넣고 있고 만길은 유심히 지도를 보고 있다.

태구 : 그게 뭐 거 같냐?

만길 : 글썽요 ..... 뭐지?

태구 : 그럼 거긴 어딘 거 같냐?

만길 : 만주 같기도 하고 ..... 러시아말도 있는 거 보면 어디 연해주 쪽 어딘지도 모르겠네.  
가만 ..... 창이 망하면서 만주 뿐만 어디엔가 진기보물들을 잔뜩 묻어 놓았다던데  
혹시 보물지도 아닐까?

태구 : 보물지도?

만길 : 왜, 일전에 귀시장에 나왔다가 잠쪽 같이 사라진 창나라 보물지도!.....

그때 만주에 온갖 마적단들이 귀시장에 다 몰렸었잖아요.

태구 : 너 나가서 그 지도와 관련된 소문이나 정보 같은 것 좀 얻어와.

만길 : 알았어요.

만길, 지도를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태구, 밥을 후후룩 먹으며

태구 : 지도는 놓고 가.

만길 : ..... 아바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

태구 : 의심하는 거 아니니까 놓고 가.

만길 : (펜히 역정을 내며) 나한테 왜 그래요?

태구 : 너한테 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 위협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주머니에서 보석 장신구를 꺼내) 이거 돈으로 좀 바꿔 봐.

만길 : 오에 ... 이진 꽤 나가겠는테요.

만길, 흉진 물건들 중에 호박 박힌 반지를 하나 꺼내 자기 손에 끼어본다.

태구 : (길게 트림하며 별뭉텨 일어나며)

조심해라. 별뭉텨를 밟새 말고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만길 : 아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 만길이 나와바리에서 죽을라고 .....

태구 : 조심하라.

만길 : 알았다고.

태구 : 새끼가 ....

만길을 슬쩍 훑기더니 지도를 책쳐 접어 바지주머니에 넣고는 속으로 올라가는 태구.

만길, 강탈한 보석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올라가는 태구의 뒷모습을 슬쩍 쳐다본다.

35. 식당 겸 여관 / 객실 안. INT. Dk

태구 : 모르겠네 .....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 도대체 뭐니?

침대에 누워 지도를 바라보며 친진하게 그러다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증얼거리는 태구.  
카메라 지도로 친진히 들어간다.

태구 : 보물 .... 만주 ..... 국경 ..... 러시아 .....

36. 식당 겸 여관 / 식당 안 ~ 계단 ~ 객실 문 앞. INT. E

병준과 삼국파 일행들 술집 안으로 들어온다.

먼저 와 있던 삼국파 일행들 중 하나와 눈을 마주치면 위쪽 객실에 있다고 눈짓한다.

병준과 삼국파를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각각 주머니와 흉안에서 무기들을 하나씩 꺼낸다.

태구의 객실 앞에 서서 호통을 질리하는 병준과 삼국파들.

37. 식당 점 여관 / 객실 안. INT. E

지도를 손에 든 채 자다 말고 악몽을 꾸다 갓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침대 밑으로 짐싸게 몸을 숨기며 총을 겨누는 태구. 문 밖으로 이상한 인기척을 느낀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종종 두드리는 소리.  
지도를 짐싸게 주머니에 집어넣고 벌떡 일어나 총을 짙는다.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  
태구, 어떡할까 고민한다.

38. 식당 점 여관 / 객실 문 앞. INT. E

두 번이나 두드렸는데 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어떡할까 고민하는 병춘.

39. 식당 점 여관 / 객실 안. INT. E

아직도 결정 못 하는 태구.  
또 한 번 문을 두드리자 마치 방금 잠자다 일어난 사람 목소리로.

태 구 : (중국어) 누... 누구요..  
문 밖 : .....

말은 안청감 있게 하면서 총을 문 쪽으로 겨누는 채 재빨리 가방과 짐들을 쟁기는 태구.  
창문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고 발을 들다가 책상 위 장이에 싸놓은 사방을 보고 다시 조심히 돌아와 사방을 쟁긴다.  
그러면서.

태 구 : (중국어) 그런데 누구시오?

40. 식당 점 여관 / 객실 문 앞. INT. E

안에서 재차 묻자 할 수 없이 자기 이름을 말해주는 병춘이.  
병 춘 : 나야. 태구. 나 병춘이야. 문 열어 봐.

이름을 대고는 순간 실수했던 건지 이맛살을 찌푸리고 아랫입술을 깨문다.

41. 식당 점 여관 / 객실 안. INT. E

태구, 창문으로 나가려다 병춘이? 하면서 멈췄다.

42. 식당 점 여관 / 객실 문 앞 ~ 안 ~ 장밖. INT. E

병춘, 잠시 기다리다가 부하를 시켜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갑자기 평평 문에 구멍이 나며 부하 하나 총 맞고 쓰러지고 병춘도 입문 몸을 옆으로 옮긴다.  
모두를 총들을 장전하며 다른 부하가 문을 발로 부수며 동시에 안에다 총을 난사하며 들어간다.  
들어가면 창문이 열려있고 커튼만 나부낀다. 병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면 창 밖 바로 옆에 붙어서 그대로 얼굴을 향해 총을 쏘는 태구.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는 병춘.

43. 식당 점 여관 / 옆 방 ~ 복도 ~ 식당. INT. E

총소리에 놀란 옆방의 두 남녀 벌떡 일어나 영문을 몰라 할 때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태구. 비명을 지르는 여자, 침대를 성큼성큼 뛰어 도망가는 태구의 장동이를 베게로 마구 팬다.  
맞으면서 상대하지 않고 도망가는 태구.  
복도에 있던 삼국과 부하, 옆방의 비명소리에 이상한 느낌을 받아 옆방 문 앞에 귀를 기울이며 서있다 열리는 문에 부딪쳐 그대로 식당 밑으로 떨어지고 문을 열고 나온 태구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 뛰쳐나온 삼국파를 향해 총질을 하며 식당 문을 짹째 따쳐나간다.  
도망가는 태구 뒷모습에서 아이리스 아웃.

44. 조선흥 마을 어귀 ~ 조선흥 주막 마당. EXT. D

아이리스 인되면 누군가의 발이 마른풀을 헤치며 프레임 안으로 쏙 들어온다.  
저 멀리 조선흥 주막이 보이고, 그 곳을 향해 성큼성큼 내딛는 힘 있는 발걸음.  
마당에서 일하는 송이, 식당 주방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뛰라고 잔소릴 늘어놓는 거의 선머슴 같다.  
손에 침을 뱉듯 벨으며 장작을 힘껏 내리치려고 할 때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면 도원이다.  
선머슴처럼 터프했던 송이 도원을 보자, 내리치려던 도끼를 조심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와 몸가짐이 사뭇 여성스럽게 달라진다.

도 원 : 아저센?  
송 이 : 아...(엠편지를 보더니) 어서 들어오세요. 아저씨 주방에 계세요.  
도 원 : 식사 좀 하게 이거 좀 잡아라.

45. 조선흥 주막 / 식당 안. INT. D

식당 안. 콩 펠어지는 멧돼지.  
멧돼지를 쟁대며 부엌으로 가져가려고 애쓰던 도원이 속 끼어들어 다시 어깨에 메고 멧돼지 도원을 쳐다보던 송이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지 부엌으로 안내한다.  
일몰이 별개저서 멧돼지를 거들이 반히고 부엌으로 따라가는 송이.

46. 조선흥 주막 / 주방 안. INT. D (늦은 오후)

진다. 눈에 띄잖아! 선 채 손가락을 움짚거리리는 두채. 더욱 무구성을 패고드는 도원의 총구. 주방에서 이 상황을 보던 송이 살며시 주방용 쇠베절단 칼을 움켜잡는데. 그때 누군가 들어오며.

나 연 : 총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총을 겨냥한 채 내려놓지 않는 두 사람, 긴장 속에 처박힘이 감도는데 한쪽에서 미세하게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고결 풀려보던 주방장이 얼어붙은 채 서 있고 그 뒤에 나머지 무리들이 주방장 목덜미에 총을 겨누고 있다. 주방장 멀멀떨떨 떨면서 들고 있던 쟁반 위에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도원이 천천히 내려놓는다.

나 연 : 내가 있을 테니까 나가볼 보세요.

주방장을 겨냥한 총도 내려지고 주방장, 다리에 힘이 풀려 풀고 있던 잔을 스프링 내려놓을 때 일련 송이가 받는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주방으로 돌아가는 주방장. 두채, 도원을 쓰아보며 입가에 색은 미소를 짓더니 터벅터벅 나간다. 도원, 나가는 두채를 보며 채의 웃더니 다시 총을 내려놓는다.

도원 : 지나가다 패고르면 다시 불러라. 밥은 먹여 줄 테니까.

나 연 : ( 땅 하며 문 닫는 소리 들리고 ) 여전하시네요.....

도원 : 저런 놈도 독립 운동을 하나?

나 연 : 옛날의 두채씨가 아니에요. 마적단들과 손 끊은 지 오래됐어요.

송이, 나연의 동장에 라이벌 의식을 느끼며 못마땅하다는 듯 테이블 위에 술잔을 뿜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놓는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사뭇 묘하다는 느낌을 받고는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는 송이.

그런 송이를 의식하며 다소 불편해하는 나연.

나 연 : 금한 용무가 있어서 왔어요. 우리 일 좀 도와주세요.

도원 : ?

나 연 : 얼마 전 제국열차가 마적들에게 털렸단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도원 : 그런데.

나 연 : 마적단들 때문에 우리 사업에 약간 차질이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가 제국열차를 습격하기로 되어있었어요.

도원 : 열차도 털어?

나 연 : 그게 아니고 그 열차에 가내마투라는 일본의 은행총수가 있었어요. 그 자가 지니고 있던 지도를 우리가 탈취하기로 되어있었죠.

도원 : 그게 무슨 지론네.

나 연 : 일제가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조선과 연해주를 잇는 철로를 세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포섭해놓은 첩보지도죠.

사실은 우리가 그 지도를 입수한 다음 일체의 철도 사업에 타격을 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중간에 마적단들이 지도를 털어간 거예요.

지도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마적단들이 왜 그 지도를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 풍문으로 떠도는 청나라 보물지도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도원 : ..... 부탁할 일은?

나 연 : 지도를 찾아주세요.

도원 : 내가 왜 그 일을 할 거라 생각하지?

나 연 : 경부선을 지을 때처럼 또 한 번 조선 동포의 학력과 수탈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게 틀림없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리고 ..... ( 말없이 도원을 바라보다 ) 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

도원 : 기절한다던?

나 연 : ( 도원을 쓰아보며 ) 장이 현상이 없미죠? 그 정도면 되겠어요?

도원 : 나쁘지 않군.

나연 얼굴에 실망스럽다는 기색을 보이다 성큼성큼 걸어 나가고 도원, 잠시 생각에 빠지면 송이, 나가는 나연의 뒤를 쫓아 문을 확실히 닫는다.

송이 : 저 여자가 나연이란 사람이예요?

도원 : .... 응.

송이 : 돌던 거랑 완전 만편이네.

도원 : 뭐가?

송이 : 디게 못생겼다~.

처다보는 도원 얼굴에서 아이리스 인 아웃.

48. 김 판주의 집 / 거실 ~ 마당 ~ 거실. INT. N

성인 서녘이 풀어진 한 한 어마어마한 금고 앞에서 무엇이 무엇에 쫓기듯 돈을 세고 있는 김판주 어떤 한기를 느껴 서둘러 금고를 열어 돈봉지를 넣는다. 서랍에서 총을 꺼내 뒤춤에 감추고 는 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본다.

김판주 : 밖에 누구인가? 박사방인가?

음산할 정도로 조용하기만 한 마당. 비가 쏟아지기 전 행한 바람만 마당을 감돈다. 잔뜩 긴장하는 표정의 김판주. 호흡으로 마음의 안정을 꾀한 듯 다시 거실로 들어설 때 소파의자에 앉아 위스키 온 더 탁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부군가를 발견한다. 품짓 놀라는 김판주. 그 부군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창이다. 김판주는 그의 폐마른 표정에 흉건한 맘으로 쫓아오는 장이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진다.

장 이 : ( 뺨 같은 미소를 지으며 ) 놀라셨습니까?

김판주 :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됐어? 지도는?

장이 : 제가 일 잘못 한 적 있었습니까?

김판주 : (그게 아니라 제국영치가 마적단들한테 털렸단 소문도 듣고 심부름 간 박사방도 소식이 끊긴 상태에서 자네마저 갑갑 무소식이니, 혼자 열마나 명치끝을 태웠는지 아나?)

장이 : (자기 숙주머니를 북북 치며) 이곳에 안진하게 있습니다.

김판주 : (얼굴이 밝아지며) 어서 어서 꺼내보게.

장이 : 그 전에 ..... 이제 값을 쳐드셔야죠.

김판주 : 아 .... 그렇구만, 얼마면 되겠는가?

장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린다.

김판주 알겠단 표정으로 품속에서 돈봉투 하나를 꺼낸다.

장이 천천히 손가락 두개를 펴다.

김판주 잠시 망황하지만 비활한 웃음을 지으며 돈봉투 하나를 더 꺼낸다.

장이 쉼 없이 셋을 펴다.

김판주 : (얼굴색이 바뀌며) 지금 장난하는 건가?

장이 손가락 하나를 더 펴다.

김판주, 동탁당하는 기분이 풀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나 노획한 장사치담계 금방 흥분을 가라앉히고 울퉁한 미소를 짓는다.

김판주 : 허허허, 자네담근, 알았네. 그대로 다 줄 테니 어서 지도를 꺼내보게.

장이, 지도를 꺼내란 말에 무감한 표정으로 미동도 하지 않는다.

김판주, 뭔가 잘못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초긴장 상태지만 장이에게 돌키지 않으려고 웃으며 슬쩍 일어섰다.

그때, 장이,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다. 움짤하는 김판주, 뚫어지게 장이의 손 동선을 주시한다.

장이, 안주머니에서 무인가를 꺼내 탁자위에 올려놓는다.

김판주, 서둘러 꺼내 놓은 무인가를 펼쳐보면 장이가 열차 안 가네마루 가방에서 꺼낸 무용지품인 가네마루의 일번서류다.

김판주 : (김판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이런 미친 새끼 같은니... 정부살인 뒤처다끼러나 하더니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돈 때문에 돈 거야? 이런 기생충 버러지 보다 못한 .... 술이나 쳐먹고 다니면 늑 기껏 먹여주고 살려 뱉더니 주인을 몰라 보고 이제 물러고 해?

장자코 들고 있던 장이, 건 벨트에서 흉을 꺼내려고 하는 데 없다. 뒤를 돌아보니 의자 쪽에 놓여 있다.

장이 돌아서러 할 때 김판주 허리춤에서 흉을 꺼내 장이에게 겨눈다.

김판주 : 내 좋은 말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봐 줄 수가 없구만.

나가 아무리 당해낼 자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귀라고 하지만 좋까지 피해가진 못하겠지. 호호 ..... 나라 팔아먹은 놈 그 밑구멍 뚫고 사는 놈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오늘 보여주 ....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획 하는 바람 소리가 나다가 했더니 김판주의 동풍이 커지면서 몸을 크게 꿈틀 거린다.

카메라 빠지던 어느새 한쪽 손은 김판주의 총 권 손을 잡고 있고 한손은 김판주의 목 뒷덜미에 가 있다.

김판주 비틀거리며 고갤 숙이면 목 뒷덜미에 검이 박혀있고 힘없이 앞으로 쭈 하고 쓰러지면 김판주의 흉은 장이 손에 들려있다.

장이 : 나라 팔아먹고 오래 살았다.

장이, 김판주의 목덜미에서 칼을 뽑아 쓰속 문질러 피를 뒤아내고 나머지 위스키를 쭈 틀어 키더니 쉬기가 도는지 흡주듯 스팀을 뿜으며 총입거리며 김판주의 금고로 간다.

간단하게 금고를 열면 금고 한쪽에 가득한 지폐와 패물들.

한쪽에 장이의 시신을 끄는 가죽함이 있다. 그것을 열어보면 불지막한 다이아몬드나 나오고 장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때 발소리 들리며 장이 다이아몬드를 일흔 주머니에 넣고 흉을 집었다가 귀에 익은 발소리들이라 다시 천천히 흉을 내려놓는다.

쌍 갈 : 알아냈습니다. 사냥꾼 박도원입니다.

장이 : 또 한 놈은?

폼 : 한 놈은 아마 귀시장 쪽 애들인 것 같습니다.

장이 : 귀시장?

쌍 갈 : 도둑놈들 장물시장입니다.

장이 : 박도원이랑 귀시장 쪽 애들이 손잡은 거야?

쌍 갈 :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마 박도원은 두목을 노린 것 같습니다.

폼 : 오늘 낮에 은정거리에서 총격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도 가져간 놈이 귀시장으로 달아났습니다. 귀시장에다 지도를 내다 팔 모양입니다.

장이 : 애들 모으면 얼마나 돼?

쌍 갈 : 짐수 명은 됩니다.

장이 : 알았어. 애들 모으는 대로 귀시장으로 출발해. (위스키 병을 다시 꺼내 들이키며) 답아라.

49. 귀시장 (도둑들의 시장) / 길거리1. EXT. D

일번시장을 타고 들어가 좁은 뒷골목을 지나면 음침한 곳에 장물아비들의 시장이 열려있다. 별의별 진귀한 장물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태구. 험악한 사내들.

일반인은 발을 들였다가는 험한 꼴 당하기 쉬운, 어찌 보면 시장이라기보다는 도둑질한 볼  
건들을 사고파는, 일종의 거대한 장물 거래소다.

태구, 이곳에 자주 들락거리는 모양으로 인사보다는 중간 중간 불복 시비와 야지를 받는다.  
예를 들면 태구의 차림새를 보고 '어젯밤 도대체 뭐 한 거냐' 등등의...  
대충 같이 호기롭게 야지를 주고받으며 날카롭게 주변의 동경을 살피면서 점점 더 좁은 뒷  
골목으로 들어가는 태구.

길 한쪽, 낮게 쌓인 나무상자 위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는 한 남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을지 힘을 주고 있다. 게다가 용변을 보는 가운데 커다란 만두를  
우적우적 맛있게 먹고 있다.

이 지켜본 한 남자, 만길 앞에 그림자가 나타나고 먹던 만두를 떼앗는 손.  
올려다보니 뚱하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만두를 한입 크게 씹는 태구가 서있다.

태구 : 출다 빨리 옷 입어라.

#### 50. 할매집 / 방 안. INT. D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 노파가 시체처럼 옆으로 누워 있다.

만길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노파는 그저 불박이 가구 같은 존재다.  
모자를 벗고 노파 옆으로 다가가는 태구.

멍하니 노파를 쳐다본다.

노파 눈을 뜨고는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표정으로 이 없는 입만 오픈거리고 있다.

태구 : 할매, 참 오래도 사십니다.

보드카를 꺼내 술을 따르는 만길.

만길 : 허허 그게 인사요? 만주 와서 어머를 때 형 거둬 주신 분이요.

태구 : 할매는 나보다 오래 살 거야. 그렇죠 할매.

그러다 태구 무언가 생각났는지 주머니에서 소담스럽게 한 종이를 꺼낸다.

태구 : 내가 이거 할매, 잘라고 종이 비 오듯 쏟아지는테도 거길 뚫고 가져온 거요.  
물어봐요. 맛이 기뻐차서 눈 돌아갈 꺼요. 으헤헤.

할매, 대답 없이 사람 좋은 표정으로 웃으며 종이를 받는다.  
종이를 펴면 형형색색의 사탕이 들어있다.

사탕을 받고 좋아라 하다가 금세 조는 할매.

만길 : (길쭉 웃다가) 어쩐 이렇게 된 거유?

태구 : 병손이 왔더라. 자식이 이제 아예 지 이름 대고 총 같더라.

만길 : 뭐 때문에? 그 지도 때문에?

태구 : 그렇겠지. 소문 도는 거 좀 들어봤어?

만길 : 그거 청나라 보물지도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아무튼 굉장한 건가봐.  
마적단들 뿐 아니니라. 일본군도 노린다.

태구 : 그러니까 이게 ..... (노첩은 있는데 할 말은 없자) 굉장한 거야. 응?

만길 : 아참 지도도 꺼내봐 봐.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쪼그마한 식탁 위에 펼쳐져 있는 서류와 지도.

만길은 안경까지 쓰고 보고 있다. 약간은 학구적으로 보이는 만길.  
서류들을 소리 내서 드문드문 읽고 있는데 모르는 글자가 많은지 영 무는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집중해서 들고 있지만 술을 대답해지지는 태구.

태구 : ... 아이구 됐다. 내놔마

만길 : 아 봐 봐요... 알어! 이게 그니깐... 제. 정.. 러시아... 알 태 산... 삼... 으음

태구 : 뭐 봐...

만길 : 아이 안다나한 그려네... 꼬 다음이 매장? 매장이라는데.

태구 : 보물이 엄청 매장됐다는 거구나?

만길 : 시추 ...

태구 : 시추가 뭐야?

만길 : 캐낸다는 거지.

..... 그리고 다량 확보.

태구 : 보물 엄청 매장. 캐내면 다량 확보. 이런 거네.

오..... (얼굴이 밝아지며) 이리 봐.

만길 : 잠깐만요. (지도를 자기 쪽으로 뺨기며) 팔 거유?

태구 : 아니.

만길 : 허허 미쳤구나. 이거 분명히 귀시장에서라도 찾은 물건일 텐데... 소문 금방난다. 애들  
눈빛 봤죠? 벌써 이거 시장투목 귀에까지 들어갔을 거야... 여기 애들이 어떤 애들  
인데... 눈치 빠르거든... 벌써 노리는 놈이 문 앞에 득시글할 거유.  
팬히 가지고 있다 봐 입지 말고 좋은 값에 내놓으시다.

태구, 씨의 웃음으로 무시하고 지도를 벗어 할매 쪽으로 몸을 틀더니.

태구 : ( 지도를 흔들며 ) 할매 이게 뭔지 알아? 여기서 보물 나오면 할매랑 우린.

순간 태구 표정이 굳어진다. 창밖으로 살짝 지나가며 아른거리는 그림자. 그때,  
팡 하는 소리가나며 보드카 병이 작살나고 만길과 태구는 테이블 밑으로 몸을 움츠린다.

만길 : 시팔 봐봐 눈치 빠르다 했자나요!

태구 : 어디야? 장박인가?

테이블을 방어벽 삼아 창 쪽으로 슬금슬금 기어가는 태구.

위에서 보면 테이블이 창 쪽으로 걸어가는데, 테이블 없애자 당황한 만길 후 다다 침대 밑으로 숨고.

창밖으로 때때 눈을 내밀어 보면 바로 앞에 진물이 붙어 있고 총 쏘만한 장소는 없다. 밖에 나와 있던 열진 할매 총소릴 들었는지 이쪽을 보고 있는데, 태구 불어가고 신고한다. 할매 말 안 듣고 무표정하게 태구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할매 뒤에서 총이 후속 나오더니 발을 더 쏘기 시작한다. 쟁쟁게 테이블을 일으켜 세워 창문을 일으켜 새워 창문을 받침 가리고 다시 바닥을 기는 태구.

만길 : (침대 밑에서 얼얼한 내민 채) 시팔새끼들! 여기가 어디라고 집대거리 없이.

태 구 : 밖으로 나가 임마. 여겼으면 다 뒤진다.

영금영금 기어서 간신히 권총을 꺼내고 총알을 집어넣는 태구.

또다시 집안으로 숨어지는 총알새끼.

들은 집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한다.

태구, 나가려다 총격진이 빗발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풀고 있는 할매를 옷장 안에다 얼른 옮겨놓을 때 또다시 빗발치는 총알들. 태구, 할매에게 머리 숙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의를 시키고 몸을 움츠렸다 벌떡 일어나 용사하면서 북도 짝 출입문 쪽으로 구른다.

속! 구르다 문가에 뚫던 쇠 밧그릇에 열구리를 찡는다.

태 구 : 아이 할매는 문가에 왜 이런 걸 갔다 놔?

성질을 내며 쇠 밧그릇을 조심히 옮겨놓고.

## 51. 할매집 / 북도, INT. D

태구 문을 열어 북도를 살핀다.

주위는 고요하다.

그때 저번저번 북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돌리고 소리 나는 쪽을 잔뜩 긴장하며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뎀 거지 소녀가 강풍을 불고 계단을 올라오다가 태구와 눈이 마주치자 집밖은 표정으로 멍뭇한다.

태구 빨리 숨으라고 손짓을 하는데 잠깐 망설이던 소녀, 강풍에서 총을 꺼내 강풍을 내던지며 태구를 향해 총을 사정없이 갈기며 온다.

태구, 몸을 북도 반대쪽으로 굴리며 용사한다. 몸을 기둥에 착 하고 팔인 다음 고개를 내밀면 쓰러져 있는 소녀...

뛰어가 보니 소녀는 이미 얼굴이 파랗게 되어 사시나무 얼듯 바로 옆에 엎고 있다.

어금니를 짓개무는 태구.

뒤따라 나온 만길, 마지막 용을 쓰다가 딱하고 죽은 소녀를 바라보며 인상을 굳고

태 구 : 이런 개자식들. (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 야 만길아 넌 할매랑 있어. 끈 울게.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오아아 하는 기함으로 좁은 북도를 정신없이 뛰어

황 문을 부수고 뛰어나가면 강한 빛이 쏟아지고.

## 52. 귀시장 / 권거리2, EXT. D.

태구, 귀시장에 턱 출연한다.

무슨 총격전이 있었냐는 듯 약간 부산스럽게만 할 뿐 너무나 평은한 시장통.

각종 낱기한 물건들을 파는 할매는 어디서 나타난 거여? 하면서 주위를 둘러본다.

귀시장의 도적들과 장물아비들이 모두 태구를 쳐다보니 상황이 좀 그런 듯 권총을 내리고

슬금슬금 걸기 시작한다.

한 눈 한 눈 눈을 보며 조심스레 걸기 시작하는 태구.

누가 적인지 모르겠다.

집결 태구를 쳐다보던 시신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태구는 마지마까지 자신을 노리는 눈을 찾으려 더욱 시신경을 끈두세우며 사람들 사이를 걷는다.

순간 똘지 그 눈일 거 같은 눈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 어깨 사이로 놓치지 않으려고 잔뜩 긴장하며 작은 총의 장전페버를 뒤로 당기는데

구걸하는 조선여자애의 애원하는 조선말이 귀에 들려오는 상황

태구 자기도 모르게 그 조선말을 하는 여자 앞에 서서 눈이 마주치게 되고 멍해져는 순간 다시 정신을 차려 그 눈을 찾으려 하지만 사라졌다.

'어디 갔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태구의 허리춤에 총구가 막 와서 뚫는다.

시장 안 사람들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어념 없고 들만 우뚝 서있게 되는 형상

쌍 팔 : 조선놈이구만.

태 구 : 니가 날 언제부터 알았다고 함부로 말 놓고 그러나 이 색바가지 없는 자식이야.

쌍 팔 : 지도 품쳐간 도둑놈이란 건 알고 있지.

태 구 : 여기가 어딘지 알고나 있나?

쌍 팔 : 길어...

태 구 : 여기서 총질하던 너도 죽습니다.

쌍 팔 : 개소리 말고 걸어.

태 구 : 그럼 확인 좀 해보까?

태구, 갑자기 앞으로 걸어가 조선소녀에게 동전 몇 개를 던져준다.

태 구 : 너희를 이끌부 끼니 때우고 여기 빨리 빠져나가라. 잉? 팔러가기 전에.

조선여자애, 태구를 향해 쳐다보던 갑자기 그 여자아이의 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소녀 뒤에서 우르르 나와 동전을 쫓는다.

아이들 나와 동전을 주우며 주위를 어지럽히자 쌍팔 당황하며 총을 들어 울리게 되고.

순간 총을 든 쌍팔을 에워싸는 수십 개의 총구와 무시무시하게 생긴 칼 무기들.

태 구 : 여기가 어딘지 알아? 도둑시장이야 여기 놈들 너희 같은 마적들이랑은 질이 달라.

지독하기론 가장 민바타들이야.

생갈, 망설이다가 천천히 흉을 내리놓으려고 할 때 태구가 쩌째게 생갈흉을 꺼내자 이번엔 어느 품에선지 창이파 아이들 심수 명이 태구를 겨누는다.  
태구 방항으로 본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생긴 형태다.  
누군가 한 방이라도 걸리면 이곳은 속수무책으로 피범벅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만들어 버릴 것 같은 상황.  
서로 엇갈리는 수십 개의 흉구와 칼들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데 중국 귀시장 왕초가 인파를 헤치고 나서며 말로 증재한다.

왕 초 : (중국어) 야 이거 뭐야. 다 죽고 싶어? 총 내리 쳐.  
하나 들 셋 하면 함께 내려놓는다. 알았지.

태구는 조금씩 술을 앞으로 걸어가며 인파 사이로 들어간다.

왕 초 : (중국어) 하나!  
태 구 : 개죽음 당하기 싫음 어여 애들 태리고 도망쳐라.  
왕 초 : (중국어) 태구 조용히 해.

모두들 극도의 긴장 상태.  
대답 없이 자기 생질을 못 이기는 듯한 표정으로 조금씩 멀어지는 태구를 노려보는 생갈.  
하지만 옆의 흉구들을 의식하며 긴장한다.  
태구 몇 발자국 걸다가 갑자기 돌아서며

태 구 : 야 이 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갓 열 몇 살 먹은 여자아이한테 총질을 시키냐!!!  
너 같이 악독한 조선놈은 처음 본다. 에이 더럽고 악독한 새끼.  
왕 초 : (중국어) 들 ...  
생 갈 : ???

생갈, 태구 얼굴을 보더니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태구를 멍하니 쳐다보다,

생 갈 : 윤.... 태구?  
태 구 : 어이구. 내 이름도 아시네. 내가 그렇게 유명한가?  
왕 초 : (중국어) 세에 ...

그때, 느닷없이 태구에게 흉을 발사하는 생갈.  
놀라서 옆 끝목길로 몸을 던지는 태구.  
몇 방의 총소리 여기 저기 팽 팽 터진다.

태 구 : 저 미친 새끼!

태구, 몸을 벽에 붙여 흉구를 꼭 생갈 쪽으로 돌리면 췌! 소리를 시발로 이수라장이 될 거 라는 예상과 달리 모두들 놀라 사라져 버리고 텅 빈 귀시장.  
총소리에 놀라 뛰어들는 몇 마리 말들. 그 사이에 몸을 숨겨 말 속도에 맞춰 엄청나게 달린 다. 조금만 가면 태구의 오토바이가 보이는데 갑자기 말들이 방향을 꺾어 버리자 행하니 혼로 서있다.  
말들이 생갈의 시야를 가리고 그 틈에 췌째게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 걸며 멀어지는 태구. 도망치는 태구를 바라보며 입가에 '윤태구'를 다시 한 번 뇌까릴 때 진열을 재정비한 도둑놈들이 합체하여 몰려오자 자신의 몸을 췌겨야 할 때가 온 생갈도 부하가 가져온 말을 타고 자리를 피한다. 거리는 순식간에 다시 췌명해진다.

53. 숲, 건너편의 광야 / 숲 EXT. D

조용한 숲.  
은폐:중인 뿔가가 불쑥 튀어나온다.  
도원이다.  
총을 어깨에 걸치고 걸어가 보면 밧에 걸린 토끼.  
타닥타닥 불이 타오르고 있고 앉아서 토끼를 잡는 도원.  
뒤췌겨려 본다.  
소금을 살살 뿌려 토끼꼬기를 먹는 도원. 가방에서 불도 꺼내 마시고...  
총을 맨 채 혼자 하는 식사. 야생동물 같다.  
그 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재빨리 폭으로 불을 끄고 총을 조준 자세로 잡더니 몸을 숨기며 인덕 밀을 내려다본다.

멀리서 태구의 오토바이가 휴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다.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도원.  
타양! 광야의 새들이 후다닥 날아가고.  
오토바이 공중에서 빙그르 돌다가 저 멀리 날아가고 태구의 몸도 반원을 그리며 나가떨어진다.  
태구, 대자로 췌는다.  
도원, 말에 올라타 태구에게 향한다.

54. 숲, 건너편의 광야 / 광야 EXT. D

태구, 도원이 가까이 와도 일어날 줄을 모른다. 완전 기절한 듯.  
도원 말에서 내려 태구 얼굴 가까이 다가가 바라본다.  
품에서 포스터를 꺼내는데 그 사이에 태구, 췌 눈을 뜬다.  
셋눈으로 보다가 옆에 떨어진 총을 집으려고 하는데 도원이 태구의 팔목을 지그시 낚는다.  
태구, 비명을 지르던 도원은 태구 옆에 세워진 이정표에 품에서 꺼낸 윤태구 현상금 수배포스터를 확 펼치더니 단점을 박는다.  
도원 : 윤태구. 나이 35세. 현상금 금 삼천원.  
태 구 : (중국어) 무슨 말야. 나 조선말 몰라.  
도원 : 아 중국분이신가?

태 구 : 진짜 엄청난 비밀 하나 가르쳐 주지. 그 지도가 뭔지 알아?  
 (도원 들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다시 먹살을 비틀어 볼 때 비장한 표정으로.)  
 보물 엄청 많잖. 케네디. 다량 확보.  
 도 원 : ?? ..... 뭐?  
 태 구 : 그 지도에 그렇게 써있다. 보물 지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을 가보는 거야. 거기서 보물이 나오면 6:4로 나눠. 깨끗하게.  
 내가 6. 너가 4.  
 어때? ..... 기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도 원 : .....

- 것.  
 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태 구.  
 사정도 해보고 집도 쫓아보고 혼자 부엌거리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너 나이가 몇이야?' 하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 애들이 가만 안 둘  
 걸' 하는 공갈과 귀시장에 가면 엄청난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회유까지.  
 그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고 말을 타고 가는 도원.  
 시끄럽다 싶으니 보지도 않고 충구한 뒤로 해서 훑을 한 번 걸진다.  
 짹 짹 날라 뿔쩍 뛰어들는 태 구.

도 원 : 앗 미안.  
 태 구 : 저거 미친 새까. 아냐? 저거! 너 미쳤어??  
 내가 같은 조선인끼리 너같이 악독한 새끼 쳤 본다.  
 나 원 참 살다 살다 쉴 쉼으로 미친. (도원 줄을 확 잡아 땡기고) 에구구...  
 카페라 통상으로 빠지면 저녁노을에 길게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  
 끌려가는 태 구의 그림자가 애처롭게 보인다.

55. 조선족 주막 / 주방 안 ~ 식당 안. INT. N  
 주방으로 도원과 태 구가 들어서면 반갑게 맞이하는 송이.  
 항상 짐승 잡아올 때처럼 끈을 들고 들어오자.  
 송 이 : 이제 오시네요~! 또 뭐 잡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온다. 그동안 잡아오던 짐  
 송보다 더 끔찍한 상태로 들어오는 태 구.) 어머 잡썩아. 이게 미예요?  
 송이, 전에 잡아온 멧돼지 처다보듯 태 구를 아래위로 훑어본다.  
 태 구, 송이가 놀라서 나온 반응이긴 하나 모욕적인데도 불구하고 지쳤는지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인다.  
 도원, 두 손으로 묶여있는 끈은 그대로 둔 채 끈 끝을 창고 벽에 박힌 쇠꼬챙이에 튼튼하게  
 묶는다.

도원, 넓은 손목을 더욱 꾸욱 누른다.  
 태 구 : 아 ...아 ... 꼬만 꼬만!  
 도원 : 윤태구 맞네.  
 태 구 : (멧돼지 때문에 눈을 쩡그리며) 몇 쫂 안 되는데 그냥 놔주라. 내가 출게.  
 도원 : 이 액수는 열차를 털기 전이고, 지금은 다르지.  
 태 구 : 이게 나냐. 나랑 비슷한 눈이 있던 이야길 들었는데 그 눈이네. ....  
 이거 놔주라.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도원 : 너 지도 가지고 있지?  
 태 구 : ??(참 힘들다 하는 표정으로) 하. 이 아저씨 ..... 너도 지도 찾니?  
 도원 : 그렇다 아니냐 있다 없다 대답만 해.  
 태 구 : 정말 ....아오 ..... 인간들이 싫다. 그래 그렇다! 하지만 없다!  
 도원 : 그게 무슨 말야.  
 태 구 :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안가지고 있다. 됐나?  
 도원 : 어렸는데.  
 태 구 : 너무 참 보기가 말리 상당히 단순하다.  
 내가 그 눈의 지도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해왔는데 너한테 가르쳐 줄 것 같냐?  
 도원 :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독립군들이 찾아.  
 태 구 : 독립군? 깨배들도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아는 거야?  
 도원 : 너희들한테는 손톱만큼도 알모라곤 없는 지도란 건 알고 있지.  
 너가 왜 그 지도에 목숨 걸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도, 너희들이 찾는 그런 지도가  
 아냐.

태 구 : ??(말뚫을 이해 못하고 있다가) 허허허 ..... 그런 수에 내가 속을 줄 아냐?  
 도원 : 머리 나쁜 게 의심도 많군.  
 태 구 : ..... 너 독립군이랑 한때냐?  
 도원 :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태 구 : 그럼 아직은 아닌 경우야?  
 도원 : 아직은.  
 태 구 : 지도를 넘기는 뜻이는 뭐냐?  
 도원 : 나 현상금에 풍이 하나 더 붙는다. 무시할 수 없는 액수지.  
 태 구 : 너무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는구만.  
 도원 : 그래. 너나 개장이처럼. 하지만 이번 일은 꼭 돈 때문만은 아냐.  
 차 동급한 거 다 풀렸냐? 다시 물는다. 그 지도 어딴냐?  
 태 구 : 있어도 없다.  
 도원 : 역시 조선놈들은 말로 하면 안 듣는구만.

도원, 태 구의 먹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다.  
 태 구 : 아이 ~ 그러지 말고 내가 아주 산뜻한 제안 하나 할까?  
 도원 : 나쁜 놈들이랑 거래 안 해.



꽃이 죽어있는 태구. 짐승 처다보듯 친근하게 꾸그러 앉아 쳐다보는 송이한테.

태 구 : 예야. 물 한 모금 줘.  
송 이 : (소스리치며) 어마나. 말도 하네.

태구, 화낼 기운도 없다. 사이 도원, 부엌 쪽에서 송이를 부르면 송이 손살같이 달려간다.  
태구 아무도 없는 사이 끈을 풀려고 하지도 않던 워나 사나운 돌짐승을 포박하는 솜씨라 여의지가 않다.  
사이 송이가 대접에 물을 갖다 주는때 안에서 도원이 다시 부르자 바다에 물 대접을 갖다놓고 네- 하면서 또 뿜어버린다.  
영탁없이 줄 묶인 강아지 싹새가 된 태구,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판계로 그냥 강아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물을 마신다.  
그때도 시원한지 까야 소리까지 낸다.

어느 정도 갈증을 쫓 태구는 주변을 둘러보다 예만 모르겠다는 식으로 별행 뒤로 늙는다.  
태구, 속은 웬지 편치 않고 아까 도원이 지도는 너희들이 찾는 지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 뱀  
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누워 있는 게 편하지만은 않아 몸을 이리 놓고 저리 놓고 하는데 벽이 삭아서인지 박힌 꼬  
쟁이가 조름씩 당겨지는 게 느껴진다.

태구, 손으로 끈을 술술 말더니 쇠꼬챙이를 힘껏 당긴다.  
쇠꼬챙이 푹 하고 떨어지며 밑에 있는 술 같은 소리 나는 곳으로 떨어지기 일보직전에 발가  
락으로 아슬아슬하게 잡는다.  
바르르 떠는 발고탁.  
친철히 소리 안 나게 내려놓고 조심조심 동정을 살피며 문을 살피시 연다. 식당에는 아무도  
없고 사위는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하다.  
어두운 식당을 나직이 몸을 숙여 식당 문술 끼이익 열고 밖으로 나가는 태구.

56. 조선족 주막 / 마당. EXT. N  
끼이익 문을 열고 앞으로 한 발자국 전진, 앞만 바라보며 나오다가 역시 아무도 없자 한 걸  
음 또 한 번 전진하며 고개를 돌려보면 마당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던 도원과 주막장,  
태구를 헛겨니. 바라본다. 그 옆에서 즐고 있는 송이.

도 원 : ..... 뭐하나. 탈출하나?  
태 구 : ..... 음 ... 이게 에.....(두리번거리며) 나가는 문이 이거 하나였나? ....  
도 원 :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나까 들어가 눈이나 불여부. 도망갈 생각 말고.  
태 구 : 도망은 누가 도망을 가? 이게 그냥 숙 따지더구만. (쇠꼬챙이를 돌려) 너희들이  
렇게 허술해도 되는 거냐?  
도 원 : 알았으니까 들어가 자.

갑자기 민망해진 태구, 별쯤한 표정으로 펜스레 하늘도 올려보고 주위를 둘러본다.  
송이, 잠이 깨서 태구를 보더니 하늘에 뭐 있나 하는 표정으로 같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주방장도 멍달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방장 : 었구름이 잔뜩 끼었네.  
송 이 : 비 온다.  
주방장 : 비?

태구, 몸이 묶인 채 꾸그러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면, 모두들 하늘을 올려다보는 썰렁하면서  
도 기묘한 풍경.  
그 때 갑자기 누가 민저라고 할 것 없이 후다닥 식망 안으로 들어간다. 비가 쏟아지고.  
태구와 주방장 송이 좁은 문 앞에서 민저 들어가려고 엉킨다.  
그런 모습을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도원.  
멀리서 천둥이 치고.

57. 원영사 (극장). INT. N

어린 아이처럼 화면에 넓이 빠져 보는 창이.  
쌍갈이 들어와 부인이 말 하려고 할 때 창이 손을 들어 제지하고는 한 장면을 마저 본다.  
좋아하는 장면인지 씨의 웃고는 쌍갈을 쳐다보면, 조심스럽고 나직이 무인가를 이야기하는  
쌍갈.  
해맑던 창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머리 위로 뿜은 영사가 불빛이 확하고 줄어들며 창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영화의 사운드는 효과음처럼 비장해진다.

58. 수박업소 / 객실 안. INT. N

창문에 비가 주르르 흐르면서 방 안 전체가 일렁거리는 듯한 이미지. 잠을 못 이루는 창이.  
악몽을 꾀는지 벌떡 일어나 얇은 한숨을 내쉬며 부스스한 머리를 넘긴다.  
한쪽 손을 내려 보며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다가 친척히 일어선다.  
마치 벽을 향해 대결 자세를 취하듯이 마주보고 서 있다가 옆에 찬 단도를 제바르게 던져  
단도가 벽에 꽂히기도 전에 전광석화 같은, 빠른 속도로 몸을 꺼내 날아가는 단도를 맞춘다.  
복도에서 웅웅 소리를 내며 창이 방으로 뛰어 들어오는 창이때들.  
창이, 아무 일 아니라는 표정을 지어보이며 돌아가라고 손짓한다.

59. 귀시장 / 주막 앞 - INS. EXT. D

인서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귀시장 어귀.

60. 귀시장 / 주막 안. INT. D

선남들 몇 명 없는 주막.  
병준이와 삼국파 앵들 한쪽에 앉아있다.  
병준이가 무인가 그러진 종이조각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앞에 앉은 누군가를 쏘아보듯 응

시한다.

병준 : 확실한 거야?

만길 : (임안에 술을 한잔 털어 놓더니) 어이 병준이. 중국 마적단에 들어가더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어? 야 그리고 나한테 먼저 찾아오면 될 걸 뭐 그리 요란을 떨고 그러냐? 장피하게.

병준 : 만약 아니면?

만길 : 내가 석기 빗어내서 이럴 가겠어. 응? 될 속였다 치자 그 다음엔? 내가 어디로 숨겠어. 왜 그래. 몇 폰 안 되는 돈 가지고. 내가 당장 금한 사정만 없더라도 이런 지안 해.

병준, 중국 두목과 잠시 컷속말을 주고받다가.

만길 : 한 번 만길의 눈을 노려보더니 부하 하나에게 무인가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다. 부하, 보자기 봉지를 하나 가져오면 그대로 만길에게 밀어준다.

병준 : 니가 부른 그대로다.

만길, 손으로 보자기 봉지를 만지면서 대강의 역수를 감 잡는다.

만길 : 다들 좋은 거야. 난 돈 생겼고 넌 지도 생겼고 원본은 그대로 있고.

장휘 : (중국어) 만에 하나 선하나라도 잘못된 지도면 넌 니 얼굴에 신이 하나 그어질 거야. 아주 쪼개.

만길 : .....병준아, 이 본 뭐라는 거냐?

병준, 시시때때로 표정으로 만길이 쳐다보다 두목 일어서면 따라 일어서신다. 일시불판하게 말에 올라타고선 역수 같은 빗속을 훑고 귀시장을 빠져나간다. 한쪽 구석에서 생칼이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

61. 할매집 / 방 안. INT. D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위수같이 쏟아지고.

태구와 도원, 할매집으로 들어선다. 만길이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다. 아재의 총격전이 엄청났음을 집안의 상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태구 : 와 미친 세끼를 쏟아 부었구나. (안쪽으로 들어서며) 할매, 할매.

태구, 이상한 기분이 돌이 방안으로 후다닥 들어간다.

아무리 봐도 할매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 방안은 어쩐지 움츠러들게 보인다.

태구, 친척히 고개를 돌려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옷장 문을 친척히 열어본다. 기본 나쁘게 캐이키 하며 열리는 옷장 문.

할매가 죽은 듯이 비스듬히 누워있다. 바닥엔 태구가 주고 간 형형색색의 사탕들이 떨어져 있고.

태구 : !! 할매!!..... 이 ..... 이 .....

태구 너무 놀라 말을 잊지 못하는데 할매 눈을 깜빡거리며 고개를 든다.

태구 : 아 깜짝야. 할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졸리면 나와서 주무셔야지. 난 일 냐는지 알았잖아. 어여 나와.

할매, 발개 웃으며 반갑게 태구의 손을 잡는다. 할매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집고는 가슴에다 집어넣는다.

할매 손을 잡고 항상 할매가 앉아있는 소파에 앉힌다.

태구 : 할매 지도 이겼어. 지도 쥌. 지도.

할매 귀가 어두워 몇 번 못 알아들다가 웃으며 고깔 끄덕끄덕 거린다. 가슴 안 깊숙이 숨겨놓은 것 같다. 할매는 모든 걸 다 가슴속에다 집어넣는다. 지퍼, 사탕, 안경, 양말, 내의 등등.

태구 : 이거 이거 옛날 버릇 못 고치고 ..... ( 할매도 너무 많아 헛갈려하자 ) 이거, 이거.

태구 지도를 받자마자 떠본다. 그대로다.

태구 : ( 도원에게 지도를 건네주려다 ) 이거 두림군들이 찾는 지도가 아니면 그대로 다시 가져간다.

도원,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안심하는 태구, 지도를 다시 집는데 도원이 달라고 손을 벌으면 슬쩍 자기 쪽으로 당긴다. 태구, 순간 짙는 손맛이 다르단 걸 느낀다.

태구,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몇 번 꺾다 집었다 반복한다.

도원, 무슨 짓인가 하는 표정으로 태구를 쳐다보고 태구는 접은 선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좌와 접히는 느낌이 안 좋고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든다.

태구, 방안을 훑어본다.

태이를 위해 백지 여러 장이 포개져 있는 걸 본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백지를 들어 보이면 백지에 지도를 그리면서 놀린 자국들이 어렴풋이 보인다.

태구 : 할매, 이거 누구 보여줬어?

할 때 : ( 손가락을 하나 올리면서 세의 웃는다 ) 한 번, 한 번.  
태 구 : 그러니까 한 번 두구? 만길어?

할때 역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 고뒀.

태 구 : 만길이 이 새끼가.....

### 62. 귀시장 / 주막 안 ~ 문 앞 ~ 안. INT. D

만길이는 귀시장 폐거리에서 둘러싸여 회회나라하며 임지에 침을 발라가며 돈과 폐물들을 귀  
시장 폐거리들에게 자랑삼아 파시하고 있다가 인기척이 틀어 고개를 들어보던  
장이 문 입구에 비스듬히 서 있고. 창칼, 끈끈한 문 밖에서 딱하니 비를 맞고 서있다.  
만길, 낫빛이 달라지며 세면 돈을 품속에 집어넣고 귀시장 폐거리들도 슬그머니 각자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으면 장이 주막으로 돌아와 만길이 앞에 앉는다.  
주막에서 술을 먹던 몇 사람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술을 자리를 피하고 몇몇 폐거리들은  
흥미롭게 그들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다.

장 이 : 그냥 갈 수가 있어. 아이지.

만 길 : ..... 누구시더라.

장 이 : 혼자 있네. 같이 다니는 놈이 운태구 맞지? 태구 어렸나?

만 길 : 아 그러니까 누구누?

장 이 : 나 박장이다.

만 길 : 박장이? ..... ( 생각차다는 듯 ) 아하 너였구나. 술 처먹으면 개 된다는 개장이.

나 설 하느라 이제 온 거어?

장 이, 만길이 꽤 세계 나오니까 세의 웃는다.

장 이 : 재있네. (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푹푹 친다 )

꿈 : 말로 할 때 풀어라. 안 그러면 박살난 대갈뿔 주워 담기도 어렵다.

만 길 : ( 꿈을 쳐다보며 ) 이 고기 영어린 또 뭐야?

장 이 : ( 꿈이 무기를 들어 올리려 하자 손으로 막으며 ) 지도 남겼나?

만 길 : ( 눈치 쫓나? 하는 표정.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 난 아무것도 모른다.

중음하면 따라가서 물어보던가.

장 이 : 그래 ..... 다시 질문 한다. 운태구는 어렸나. 내가 운태구에게 볼 일이 있거든.

만 길 : 너 귀구영에 볼 마야? 왜 이렇게 사람 말 못 알아들어?

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알 바 아니구. 나두 내 사정 만만치 않아.

나들이 우리 집 작살내서 비가 출출 세. 내가 너 보면 대갈뿔을 같이 마셔도 시원치  
않아. ( 발을 없자 ) 정말 말릴 못 알아들네. 내가 니 사정 물어줄 여유가 없거명. 그  
러니까 태구영 만나서 볼 일을 보든 니 무을 따서 바치든 삼국과 애틀 쫓아가서 지

도를 찢든 이어 가서 뒤든 해라.

장이, 팔팔에 약간 필리자. 괜히 어색해져서 어깨를 우쭐거리며 뒤에 서있던 쌍칼과 꿈을 쳐  
다보며 리키 대고 웃더니 만길 일어서려 할 때 갑자기 쌍칼이 차고 있던 양옆의 칼을 순식  
간에 빼서 만길의 손등을 휘 하고 뺐다.

크악 ~ 비명을 내지르는 만길. 한 손으로 뒤춤에 칼을 뽑으려 하자 옆에 있던 꿈, 들고 있던  
쇠망치로 만길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한다. 그냥 나가떨어지는 만길.

만길의 한쪽 머리통에서 피가 분출되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겨우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데, 장이, 테이블에 뛰어올라 몸을 붕 뜨며 일어서는 만길에게 공중극을 날린다.

그것을 본 귀시장 폐거리들 서너 명 우르르 장이에게 물러가는데 귀신같은 솜씨로 순식간에  
귀시장 폐거리들의 금소만을 찾아 칼로 찍거나 베어버린다.

갑소마다 날카롭게 배인 자국을 부여참고 추종낙담처럼 쓰러지는 귀시장 폐거리들.

그 사이 만길,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칼을 뽑아 일어서 장이를 향해 공격해보지만 도저  
히 장이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

몇 수만에 만길을 구석으로 끌고 가 손살같이 속삭삭삭 회를 치는 장이.

일마나 따르고 예리하게 칼질을 했던지 화매와 옷 조각 머리카락 한 움큼이 조각조각 되어  
바닥에 떨어진다.

만길,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나가다가 그대로 문밖으로 쓰러진다.

장이, 약간 흥분해서 쌍칼과 꿈을 휘 들어보더니 경련을 하는 만길을 보고 맑게 웃는다.

만길, 뿔머리에서 나오는 핏물이 빗물에 번지며.

장이는 만길 손에 낀 호박반지를 꺼내 빗물에 씻더니 가치를 감정하듯 이리저리 보다가 주  
머니에 집어넣는다.

장 이 : 내가 딱 운태구한테 한 마디 전할 만큼만 살려놓을게.

정신 놓지 말고 하나하나 푹바로 들어라. 응? ..... 대답해라.

만 길 : 너 ..... 죽어.... 꼭 죽어.....

장이, 그런 만길을 쳐다보며 고여 있는 빗물에 피 묻은 칼을 들어 손을 내리치려 하다가  
칼날을 보더니

장 이 : 무디다. 날 좀 갈아와. ( 쌍칼에게 넘겨주고는 일어서며 이맛살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 비는 ....

쌍칼, 부하. 한 명에게 우산 가져오라고 하고 부하가 후다닥 후다닥 우산을 장이 앞에서 확 펼치는  
데 땀! -우산에 구멍이 뚫리면서 우산을 펴던 부하가 나가떨어진다.

놀란 장이 뒤를 돌아보는데 도원 말을 타고 오면서 또 한 번 장전한다.

장이, 들면서 총을 꺼내 응사하고 또 어디선가 날아오는 총알.

만길에 밀리듯 주막 안으로 뒷걸음치며 반격하는 장이,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또 피하고  
쓰러진다.

기습적인 협공에 당황한 장이때들, 주막 안으로 몸을 피하며 뒷문 쪽으로 몰려간다.

태 구 : 이 세끼들 어디 있는 거야?  
도 원 : 건너편 같은데 .....

64. 귀시장 / 주말 앞 고깃간. INT. D

골목을 사이에 두고 주말 앞 고깃간으로 뛰어 들어가 고깃간 주인들을 흉으로 위협하며 구 식으로 문 뒤 전열을 재정비하는 창이파.  
골목을 주시하며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쏠 태세다.  
창이, 고깃간 한쪽 전열장의 유리창을 깨고 술병을 들어 마개를 연 뒤 언제 난 건지 모르는 팔쪽 위 상체에 뿌리고는 골격골격 술을 들이킨다.

창 이 : 됐네. 윤태구. ( 희죽 웃으며 ) 만주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야 보네.

술병의 술이 비었는지 거꾸로 뒤집어 흔들어보더니 고깃골 돌려 고깃간 주인을 본다.  
기겁하는 고깃간 주인부부. 눈이 마주치면 술! 술! 하며 손짓을 한다.  
고깃간 주인 부부 꿈뜰개 전열장을 열어 술을 찾으려면.

창 이 : 이떡할까? 이렇게 조져놓을까?

미간을 찌푸리며 수를 생각하듯 왔다 갔다 서성거리다 누워있는 꿈을 꿀 꿈 보더니 꿈. 더 이상 숨을 쉬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친친히 꿈 쪽으로 걸어간다.  
무감하게 죽은 꿈을 내려 보는 창이.  
부름꾼 채 죽은 꿈의 눈을 감겨준다.  
그리고는 바로 돌아서서 총알에 탄알을 깨작깨작 집어넣으며 창가로 다가간다.  
이 때 태구와 도원, 고깃간을 향해 집중사격하고 고깃간 안이 총알세례로 난장판이 되어 가 는데 창이는 빗발치는 총알세례에 아담파라지 않고 총알을 장전하며 투박투박 걸어간다.  
쌍칼과 부하를 일흔 창이를 끌어당겨 문을 피하게 하고.

쌍 칼 : 지금은 아닙니다.

창 이 : 냐.

쌍 칼 : 윤태구가 보물 문헌 테까지 가게 해놓고 그 뒤 처치하시면 됩니다.

얇은 호흡으로 흥분을 가라앉히는 창이. 머리를 쏘아 올리며 잠시 정신을 가다듬더니 창밖 을 주시하다가 건너편 주말 앞에서 만갈이가 사력을 다해 주말 안으로 기어가는 것을 본다.

65. 귀시장 / 큰길. EXT. D

다시 창이의 정적감. 그러다 한쪽에서 말소리가 들리며.

태 구 : ..... 만갈이!

63. 귀시장 / 주말 뒤 골목 - 큰길가. EXT. D

비가 쏟아지는 주말 뒷문은 앞에 상황과 상관없는 듯 평온하다.  
그것도 잠시 파작 하면 부서지는 주말 뒷문.  
문을 부서며 우르르 빠져나오는 창이파들.  
골목을 필사적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태구와 도원과 태구도 뒤따라 나와 총질을 한 다. 골목길에서의 쫓고 쫓기며 벌이는 총격전.  
위나 숫자에 밀려서 대처 상황에서서는 빗발치는 총알 세례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도원 과 태구.

도원, 속 고개를 돌려 건물들 구조를 보더니 고양이처럼 가볍고 겹싸게 건물들을 만난다.

건물 지붕에 올라 창이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을 향해 총알을 먹이는 도원.

한 명씩 나가떨어지는 창이파.

태구, 약간 잠뜰 먹은 표정으로 도원을 쳐다보다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는 표정을 짓고는 뒤로 슬금슬금 빠져 나가려다가 도원한테 걸린다.

도 원 : 야 윤태구!! 어디 가!

태구, 못 들은 척 조금씩 뒤로 빠져 나가려는데 도원, 총을 윤태구에게 걸린다.

머리 위로 총탄이 터지자 기겁을 하며 고개를 숙이는 태구.

태구, 인상을 찌푸리며 혼자 씨부릴때만 원위지 한다.

도원, 태구에게 수신히로 지시하면, 얼굴에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앞으로 달려 나오며 무차 별 난사하는 태구.

도원, 그 틈에 기르르리는 다리 위를 뛰어가며 총을 발사하고 밀에선 크로스보로 가로지르는 태구가 창이를 불투 하는 꿈을 향해 총을 발사한다.

꿈의 동쪽에 피가 튀고 창이 쓰러지는 꿈을 순간적으로 잡는다.

창이와 꿈이 그리고 있는 사이 불투를 치며 공격하는 창이부하들.

계속 총을 쏘는 태구의 총이 과열 되었는지 총에 불이 붙자 허둥대며 불을 끄는 태구.

그 사이 불투를 방해삼아. 창이와 꿈. 몸을 피하고 도원이 태구에게 사격 중지의 손짓을 하면 그 틈에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창이부하들도 사라진다. 골목 안은 또 다시 고요하고.

도원이 벽을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온다.

도원과 태구 조심스럽게 조금씩 골목 끄트머리로 전진한다.

태구, 상체를 심하게 수그린 채 모퉁이에 기대어 큰길을 내다본다.

골목 안쪽 불투를 쫓는 태구의 영명이 불투로 부딪는 도원. 태구 돌아보면.

도 원 : 또다시 도망갈 생각하면 그때 니 영명이에 구멍 날 줄 알아.

태구, 상가시다는 듯 알아서. 알았어 이런 표정을 짓는다.

도원, 큰길가로 얼굴을 살짝 내밀자 피웅 하며 도원 머리 위에 총탄이 박힌다.

얼른 고개를 숙이는 도원.

만걸이를 의치는 동시에 동시에 주막 앞 근길 쪽에서 거의 죽기 임보적전의 만걸이가 창이파가 타 고 온 말에 매달려 처참한 상태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태구,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한다.  
본노에 치를 떨며 참지 못하고 큰길로 뛰쳐나가려는 태구를 잡는 도원.  
하지만 태구, 도원을 뿌리치며 쌍권총을 쏠 새 없이 발사하며 뛰어간다.  
태구, 뛰어나가 보지만 창이파를 뒤시장을 빠져 나가고 있고 저 멀리엔 만걸이가 질질 끌려 가는 모습이 보인다.

태구, 필사적으로 총을 쏘며 달려보지만 뒤쫓아 가기에 무리다.  
그때 도원 나와서 토글 총입구로 빠져나가는 만걸이를 대단 말을 향해 쏜다.  
발머리에 정확히 맞으며 말, 그대로 주사하고 말에 타고 있던 부하 고꾸라지며 다리를 뺐다.  
창이, 멀어지면서 뒤를 힐끗 쳐다보고.  
태구, 달려와 쥐새끼처럼 숨을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기어가는 부하를 향해 미친 듯이 총을 쏜다.

도원, 달려와 태구를 말리고 그제야 화가 풀린 태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있는 만걸에게 다가간다.

만 걸 : 아 시발 .... 이게..... 뭐야 ....

태 구 : 야 말하지 마.

만 걸 : 원본 .....그대로 있지? 그거 그대로 있는 거지.

시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는데 .... 형 .... 미안해. 나 약속 못 지켜.

태 구 : 뭐.

만 걸 : 같이 고향 못 가게 돼서 ..... 아 시발 이렇게 죽을라고 그렇게 살라고 했나?

태 구 : ... 이 새끼가.

만 걸 : 형, 물 좀 줘. 목말라.

태 구 : ?

만걸 편안히 한숨을 내쉬듯 마지막 숨을 내쉬고 멎는다.

태구, 그런 만걸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본다.

태구, 옆에 서있는 도원을 의식하며.

태 구 : 혼자 만주 와서 처음으로 정 붙였던 놈이다.

비는 하염없이 내리고 .....

더춥고 되면.

### 66. 계곡 절벽 EXT. Dk (황혼)

창이, 무표정하지만 두 눈에 복수심에 살기가 활활 타오르고 카메라 빠져면 붉은 황혼을 배경으로 계곡 절벽에 서있다.  
김복이 지는 황혼, 실루엣으로 보이는 창이의 원경. 무겁고 음침한 배경음이 조금씩 커지면 서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컷 아웃되며.

### 67. 독립군 야영지 / 숲 속 EXT. M

이른 아침.

울창한 자작나무 숲.

도원과 태구가 각기 말과 오토바이에서 내려 숲으로 들어간다.

간헐적으로 기본 나쁜 세소리만 들릴 뿐 쉼은 듯 고요하기만 한 숲.

도원과 태구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친친히 걸어간다.

태구, 걷다가 바짝 마른 나뭇가지를 밟자 막 소리를 낸다.

잠시 멈춰서는 두 사람, 또 다시 적막감이 숲속을 감돌고 숲속에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자 다시 걷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도원이 멈춰 서서 돌이를 하나 툭 하고 따서 입에 갖다 댈다.

쫄피리를 불며 주위를 관찰하는 도원.

그때 숲과 바닷 나뭇들이 기괴하게 조금씩 움직이고 시작하더니 어디서 어떻게 숨어 있었는 지 은폐 임피하고 있던 심수 명의 독립군들이 총을 겨누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태구.

리더 격인 한 사람이 손을 불어 총을 모두 내리게 하고 손으로 산세소리를 내면 이디신가

참모들을 물고 나오는 독립군 대장 김혁. 김혁 뒤로 나연과 두재, 황씨가 따라 나온다.

말없이 태구에게 손을 내밀면 태구 마땅찮은 표정으로 지도를 도원에게 건네준다.

김 혁 : 가지고 왔나? .... 이 사람은 누군가? ( 태구에게 ) 당신도 조선 사람이오?

도 원 : 알아 두실만 한 인물이 아닙니다. 자 여겼습니다.

태구, 차기를 소개하려다 도원의 말을 듣고는 가만 있는데. 웬지 인쇄 보이는 태구.

때맞듯 지도를 받아든 김혁, 옆에 있는 참모 황씨에게 넘긴다.

황씨, 지도를 김혁한테 건네받고 펼쳐 보이며

한참을 들여다본다.

황 씨 : 이 ..... 이게 .... 뭐니까?

도 원 : ?

황 씨 : 이진 우리가 찾는 지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 구 : ??

나 연 : 이게 가네마루가 가지고 있던 그 지도가 맞는 거예요?

태 구 : .....

도 원 : 맞아? 가네마루 কে?

태 구 : 아니 .... 난 모르지. 자기들끼리 가네마루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지지.

황 씨 : 이 지도는 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만주와 경부선을 직선으로 잇는 철도에 있지

지도를 찾는 것입니다.

두 재 : 어이 봐도된 애쌌다. 엉뚱한 거 가지고 오느라고.

도 원 : .....

태 구 : ....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 니기미 지도 갖다 달라고 해서 개고생하고

갔다 왔더니 뭐라는 거야? 그림 이진 무슨 지도야?

황 씨 : 우리도 모르겠어? 이진 만주도 아니고 ... 만주와 러시아 국경 어디쯤인 것 같은데.

태 구 : 국경? 아 뭐야. 도대체.

황 씨 : 어디 다시 한번 봅시다. (한참을 보다가)

연해주 근처 같고, 무엇이 매장되어 있나 본래 뭔지 모르겠네.

..... 풍문으로 떠돌고 있는 진짜 보물지문가?

태 구, 짧은 플레쉬 - 열차 안에서 철도예정지를 보고 그냥 구겨 버린 것 같은 기억 -

그 안에 모든 사람들 순간적으로 숨이 멎은 상태로 울스롭 자세로 있다.

그런 와중에 태 구, 엄청난 빠른 속도로 황씨한테 지도를 빼앗더니 웃옷을 풀고 안주머니에

그것도 꺾숙이 집어넣고 다시 웃옷을 입고 단단히 좌착 여민다.

나머지 사람들 아안이 병병한 상태로 모두들 태구를 쳐다본다.

태 구 : 왜요 .....이 지도는 망신들이 찾는 지도 아니잖아요.

황 씨 : .....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 ..... 음.....

나 연 : 뭐 다른 문서나 이런 거 없었나요?

태 구 : 다른 거? ..... 음 ..... 무슨 첩보 그려져 있고 지역 이름 써있는 게 있었는데.

황 씨 : 바로 그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문서입니다. 그게 어딴습니까!!

태 구 : 프혜혜해 ..... 농담. 내가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허리 하는 표정의 사람들.

### 68. 독립군 아영지 / 숲 밖. EXT. D

도원, 독립군들과 인사를 마치고 돌아설 때 나연이 다가온다.

이때 둘 사이를 갈라놓듯 태구가 둘의 관계를 의심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지나가고.

나 연 : ( 태 구 지나가길 기다리며 머뭇거리다 )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도 원 : 어떡하긴 떠나야지.

나 연 : 또 어디로?

도 원 : ( 말안장에 라이플을 구겨 넣으며 ) 사냥꾼이 짐승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지.

나 연 : 그렇게 현상범들이나 쫓아다니며 평생 보내실 거예요? 차라리 고향에라도..

도 원 : 나연이가 선택한 곳에 나연이 남고 내가 선택한 곳에 내가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니?

도원, 라이플을 단단히 묶고는 나연을 돌아보면 나연 도원을 향해 쳐다본다.

도 원 : .....조신으로 돌아간다고 탈라질 것도 없잖아.

나연과 도원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본다.

나 연 : 그래요.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도 원 : .....

나연, 도원과의 이별이 아쉬운지 도원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스트로 손을 놓으며 뒷걸음치듯 숲으로 사라진다. 그런 나연을 보던 도원, 안쓰러운 표정으로 찢 허를 찌다가 원천히 태구에게 다가온다.

태 구 : ( 악수를 청하며 ) 그동안 즐거웠다. 다음에 볼지 모르겠지만 또 보자.

도원, 악수를 청한 손에 총을 겨눈다.

태 구, 총과 악수를 한 꼴이다.

도원, 그 상태에서 태구의 쌍권총을 꺼내 압수한다.

도 원 : 너한테 붙임이 끝난 건 아니지. ( 품에서 포스터를 꺼내)

올랐더라. 그것도 많이. 엄청나게.

태 구 : ( 포스터를 확 찢더니 찢쩍 찢고는 다른 손에 든 보물지도를 흔들며 ;

이게 보물지도라잖아. 진짜 보물지도!

( 도원을 참 딱하다는 표정을 보며 ) 7 : 3

도 원 : 그게 뭐야.

태 구 : 나누자고 내가 7 너가 3.

도 원 : 됐다.

태 구 : 6 : 4

도 원 : 그만. 자 말 끝개 할 때 내려와. 총 버리고. 두 손 들고 번쩍.

태 구 : 야 박도원. 내 말 좀 들어봐. 나 솔직히 나 저 사람들 맘에 안 들어. 저렇게 무슨

산짐승들도 아니고 숲 속에 숨어 있어서 먼 나라를 찾겠어? 맘에 안 들지만 너 시

키는 대로 그대로 했잖아. 그래도 나 지도 가지러 갔었잖아. 왜냐, 나라를 위해서?

아냐. 내 꿈을 위해서야. ....앗, 내 말 잘못했다. 우리의 꿈을 위해서야.

우리의 6대4의 꿈 말야.

도 원 : ( 반응 없다 )

태 구 : 넌 이 지도가 궁금하지 않냐? 나두 훨씬 별 것도 아닌데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니

그겠어.

그래서 나두 니 말 듣고 이게 철도 어찌군가 보다 했다가 아니란 거 알게 됐어.

적어도 철도 지도는 아니잖아. 나 아직 확신은 없어. 아직 뭔지 몰라.

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뭔가 굉장한 게 느껴져. 이 종이 조각 하나가 나 같은 놈에게도

꿈을 주잖아. 그래서 한 번 가 불라고. 가서 한 번 확인해 불라고 그래.

갔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발로 들어갈게.

아니 몇 놈 더 헤치우고 지름보다 더 값 올려서 그때 들어갈게. 3일만 봐주라.

부탁이다. 한 번만 가서 보길래도 하자. 죽더라도 시발 가서 보고 나서 죽자.

너 이 세상 무일로 버릴래. 평생 도적놈들 잡으려 다닐 꺼냐.

우리가 한 번이라도 화망이란 거 가져본 적 있냐? 있었냐?

그럼에 생겼잖아. 내 손 안에 있잖아. 한 방에 인생 역전 되잖아.

아, 서간 없어. 한 번만이다.

태 구 : 프리히히.  
 도 원 : ?? 왜 웃어?  
 태 구 : 진짜 웃기는 놈이네. 웃기잖아. 와 소문이 그렇게 나는구나.  
 도 원 : 그게 무슨 말야.  
 태 구 : 아니 나투 들어만 것 같애 말이 좀 달라서. 근데 그놈 아주 흉측한 놈이네.  
 도 원 : 뭘 같은 놈이지만 솜세만큼은 살아있는 전설이지.  
 태 구 : 그래서 잡으려는 거야?  
 도 원 : 나쁜 놈이니까.  
 태 구 : 그 이유가 다야?  
 도 원 : 돈이 되니까.  
 태 구 : ..... 난 너가 더 무섭다.  
 (잡자기 벌떡 일어나며 )

너 배투산에서 일본에돌이 사냥 못하게 해서 만주로 왔다는 거 진짜야?  
 내일이면 우리 손에 보물이 한가득 켜어질 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현상금 타령이냐?  
 도 원 : 나라는 없어도 돈은 있어야지.  
 태 구 : (도르 힘없이 누우며 ) 넌 내가 쓴 조신놈 중에 가장 냉정한 놈야. 성공할거다. 넌.  
 도 원 : ..... 넌 어찌다 만주로 온 거야?  
 태 구 : 세 살 살아볼라고.  
 도 원 : 그게 하필 만주냐? .... 조선에선 뭘 했어? 도적질?  
 태 구 : (틀어누우며 ) 더 이상 묻지 마라. 가슴만 아프다.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는데 몸은 어찌 된 건지 대륙의 끝으로 달라고 있네.  
 도 원 : ..... 만주에 사는 조선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  
 ..... 야 ..... 윤태구.

태 구 : ..... 왜?  
 도 원 : 그 놈이랑 내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태 구 : 누구?  
 도 원 : 손가락귀신.  
 태 구 : !!... 니가 이기잖아.  
 도 원 : 그걸 어떻게 알아?  
 태 구 : 아 개장인가 뭔가가 손가락 귀신이라며. 아까 창이 도망쳤잖아.  
 도 원 : 그건 제대로 붙은 게 아니지.  
 태 구 : . (모포를 끌어당기며 몸을 옆으로 돌린다 ) .... 붙은 건 붙은 거지. 제대로는  
 ... 뭐 ... 제대로...음.... (침침 말소리 작아지며 )

말이 끊어지고 도원, 무슨 생각에 잠긴다.  
 조금씩 태구의 숨소리가 들리고.  
 도 원 : 자나?  
 대답 대신 태구의 숨소리는 코고는 소리로 바뀐다.  
 도원, 그런 태구를 힐끔 쳐다보더니 모포를 당겨서 잠을 찾는다.

도원, 한동안 긴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도 원 : 6대4. 내가 6 너가 4.  
 도원, 태구 손에 있던 지도를 빼앗으며 말에 올라탄다. 멍혀 있는 태구를 보며.  
 도 원 : 보물 찾으러 안 갈 거야?  
 태 구 : ..... 저 새끼. 저거 .... 진짜 나쁜 새끼네.

69. A. 계곡 / 보물밭. EXT. N  
 휘영청 밝은 보름달.  
 카페라 다운하면 모닥불 피워놓고 이불과 모포를 뒤집어쓰고 누워 자는 도원과 태구.  
 잠이 안 오는지 태구 뒤척거리다  
 태 구 : 뭐 하나 물어보자.  
 도 원 : 넌 여태 가만있다가 잘려고 하니까 뭘 물어보겠다고 그래.  
 태 구 : 지금 생각나서 그래. .... 넌 왜 창이한테 목숨 가는 거냐?  
 도 원 : 창이 ..... (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 너 손가락 귀신 이라고 들어봤어?  
 태 구 : 손가락 귀신? ..... 근데  
 도 원 : 조선 전국을 돌며 싸움으로 아주 날리던 놈인데. 워낙 전설적인 놈이니까 전국  
 각지의 최고롤이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보내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놈이 뛰어난 게

-69. B. 어느 주막 / 손가락 귀신 플레쉬백. INT. D  
 주막에 누군가 앉아있고, - 예기서 얼핏 창이로 보이는 남자의 차림새는 지금의 창이 차림  
 새와는 사뭇 다른 조그만 소박하고 촌스런 의상이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고 뒷모습이  
 다 - 인상이 교약한 한 놈이 남자 앞에 우뚝 선다.  
 위아래를 훑어보다 술을 한 잔 골짜 마시더니 내기를 건다.  
 남 자 : 너가 지면 손가락 하나를 줘야.  
 인상과, 인상파깝게 인상을 한 번 휩 짓더니 먼저 선방을 내리치는데 창이 유연한 자세와  
 엄청난 파워로 인상파를 제압한다.  
 첫, 팔을 휘 켜고 손가락을 벌리게 한 다음 닭 모가지 내리치는 칼로 휘 내리치면  
 첫, 손가락을 술잔에 넣고 술을 주욱 들이키는 남자.

-69. A. 다시 현재로 돌아와.

- 시간 경과.

태구의 코고는 소리 일정하게 들리다가 멈추면 도원, 잠결에도 자동적으로 손이 총으로 간다. 총이 손이 닿자 몸을 뒤척이며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태구의 코 고는 소리. 어느 정도 일정하게 다시 들리면 역시 가수인 상태에서 침상 속으로 들어가는 도원의 손. 코는 계속 고는데 눈을 번쩍 뜨는 태구.

코를 골며 몸을 뒤척이는 취 하면서 침상에서 몸을 조심히 빼는 태구. 또 한 번 뒤척이면 몸이 거의 나와 있다. 역시 코고는 소리는 계속 리듬과 소리의 강약을 유지한다. 그런 태구의 페르민스를 유심히 쳐다보는 누대. 조심히 건벨트를 어깨에 걸치고 몇 발자국 가다가 누대와 눈이 마주친다. 태구, 코고는 소리 계속 내면서 누대에게 가가! 이런 투로 코고는 소리에 맞춰 가라고 손짓한다. 앞으로 누대를 보고 뒤론 도원을 의식하며 긴장하는 태구. 누대를 보며 코골이로 짜증을 내는 태구. 마치 누대가 으르렁 거리는 소릴 내는 듯하다. 할 수 없이 바닥에서 몸을 집어 뛰 던지며 누대를 쫓는다. 안도의 코골이. 태구, 자고 있는 도원을 향해 총을 들어 서서히 방아쇠를 당기려다가 잠시 망설인다. 총이 팔까 망설이다가( 코는 계속 끈다 ) 총을 집어넣고는 조심히 오토바이를 몰고 간다.

70. 몽타주.

A. 조선인 주막. EXT. Dn  
잠 못 이루고 마당에 나와서는 송이 저 멀리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도원을 생각한다. 그러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후다닥 식당으로 들어가 쓸 만한 칼들을 쟁긴다.  
B. 새벽의 황야. EXT. Dn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어디론가 달리는 태구.  
C. 새벽의 황야. EXT. Dn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창이와 부하들.  
D. 새벽의 황야. EXT. Dn 떠오른 태양을 옆으로 어디론가 달려가는 삼국과 마적단들.  
E. 새벽의 황야. EXT. Dn 어디론가 달려가는 송이.

71. 계곡 / 아침 EXT. M

악몽에서 깨어나듯 놀라며 잠에서 깨는 도원. 기계적으로 라이플을 든다. 태구가 없다. 이상한 기분이 풀어 일몰 자기 품속에 있는 지도를 꺼낸다. 친을 열어 꺼내보던 지도는 온 데 간 데 없고 펼쳐보던 창이 현상금 포스터가 나온다. 그림에 태구의 매를 때릴 듯한 글씨로 " 꼭 잡아라 " 라고 쓰여 있다. 후다닥 길을 사리고 말에 올라타는 도원.

72. 산릉성이. EXT. Dk (황혼)

병준이 지도를 펼친다. 다국적 마적단들 고개 하나를 앞에 두고 드디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곳에 도착한다. 모두들 쉬지 않고 달려온 티라 조공은 지쳐있는 모습들이다.

장 취 : (중국어) 다 온 거냐?  
병 준 : (중국어) 이 고개만 넘으면 별판 하나가 나옵니다. 별판 한 가운데 마주보는 앞은 산릉성이가 나오고 그곳만 지나면 반경 30미터 안이 표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장 취 : (중국어) 가 봐.

병준, 부하 하나를 시켜 고개를 뛰어올라가게 한다.  
부하 하나, 마치 원숭이처럼 훌쩍 내려 전속력으로 고개를 뛰어간다.  
병준, 장취 모두들 긴장한다.  
부하 힘껏 달려가 고개 끝에 서서 밀을 내려다본다.

부 하 1: (밀을 내려다보고는 벽찬 표정을 지으며 있는 힘껏 큰소리로: 중국어 ) 보인다!!!  
바다가 보인다!!! .....

( 뒤를 보며 ) 바단테요.

장 취 : (중국어) 바다?

조선말 중국말 러시아말 서로 섞이며 뭐래? 바다래? 바다? 왜 바다야? 하며 시끄러워진다.

병 준 : ..... 만길이가 개자식 ..... ( 어금니를 짓깨물며 고개를 꼭 숙인다 )

카메라 촬영하며 고생고생 연해주 바다까지 온 마적단 일행들.

73. 아편굴 앞 / 오후, 후미진 빈화가. EXT. Dk (황혼)

나름대로 빈화지만 약간 행한 다운타운. 오토바이 서고 고개를 돌아보면 식당과 술집 나름대로 근대식 바가 있는 숙박업소가 나온다. 오토바이를 문 앞에 세워놓고 계단을 올라가려 할 때 불 꺼진 관공서로 보이는 건물에 현상금 포스터 붙어있는데 장이가 있고 거의 맨 끝에 태구의 포스터도 붙어있다. 주위를 둘러보며 포스터를 뜯으려고 하는데 안 뜯어진다.

옆에 매고 있는 가방에서 색연필을 꺼내 자기 얼굴에 애무를 만들고 수염을 그린다. 색연필을 집어넣으며 이 정도면 괜찮나 하면서 보다가 다시 꺼내 붓구멍을 크게 눈썹을 진 하게 그리고는 모자를 눌러쓰고 색안경을 쓰고 나름 번장했다는 부로 남양하게 숙박업소 계단을 뛰어올라간다.

74. 아편굴 / 식당. INT. N

저녁저녁 걸어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며 주인공을 찾는 태구. 주인공, 태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씨익 웃는다. 태구, 이게 날 알아보나 하지만 계속 시치미 때며.

태 구 : ( 중국어 ) 먹을 거랑 술 좀 주시고... 방 있죠?



주인장 : ( 중국어 ) 아 네. 방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75. 아편굴 / 복도. INT: N

주인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내려가 복도를 걷기 시작하는 태구.  
그런데 방문이 없고 얇은 천으로 막혀 있어 방 안이 대충은 보인다.

편히 눈길이 가고...

방 안엔 어떤 중인 반나체의 남과 여

눈이 휘둥그레지는 태구...

지나는 방 모두 아편쟁이들이 득시글하다.

주인장 : ( 중국어 ) 여자가 필요하신가요?

태 구 : ( 중국어 ) 안 필요한데.....

주인장 : ( 중국어 ) ..... 먼 길 오셨는데 여독 좀 푸시지요.

태 구 : ( 중국어 ) 풀 거 없는데....

주인장 : ( 중국어 ) ... 당신은 절 모르시겠지만 진 당신을 압니다. 열차사건의 주범이시죠?

갑자기 멍해지는 태구, 충을 뺏는다. ( 여기서부터 다시 조선말 )

주인장 :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독립운동 하는 서계식이라고 합니다.

태 구 : 아. 자식이 어떤 피다 머리가 돌았나? 개나 소나 독립 운동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아

편장사처도 독립운동 한다고 그러네?

주인장 : 자세한 이야기 방안에 들어가서 하시죠... 흥은 넣으셔도 됩니다.

태 구 : 좇까 무슨 풍풍이야... 시팔 나는 어떻게 알고?

주인장 : 운태구 선생님이야... 유망하시니까요.

한쪽 벽에 붙어있는 현상금 포스터가 보인다.

주인장 : 허허허 여긴 괜찮습니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 지도도... 가지고 계시죠?

태 구 : .....!!!

주인장 : 자 방에 들어가시죠...

76. 아편굴 / 방 안. INT: N

방 안으로 들어가는 둘.

방 안은 매우 아방가르드적으로 꾸며져 있다.

현란한 벽지에... 이불과 방석, 가운데 놓인 과일조차 현란하게 보인다.

한쪽에 텅채 앉는 태구. 여전히 주인장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상태다.

어찌히 나긋나긋한 주인장, 방안에 있는 종을 팔랑팔랑 울리자 잠시 후 쪽 빠진 미녀들이

들어온다.

태 구 : ( 풍소리에 들어오는 여자들에게 총구를 겨눴다가 ) 뭐하는 거야?  
주인장 : 여급들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장이 손지하자 여자들이 태구의 수발을 들기 시작한다.

그때도 총검은 손은 놓지 않는 태구, 오감을 세우고 맹맹히 긴장해 있다.

주인장 : 이야기 드리기 부끄럽지만 이 아편굴은 독립운동 자금굴이죠...

여기 주 고객은 중국, 러시아, 일본인들입니다. 그들의 돈을 거둬 독립운동에 자금  
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자금 조선이 많이 힘든 상황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이야기 드립니  
다. 자!!

주인장은 벽에 붙어있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도를 가리키며 작대기로 집어가며 설명한다.

주인장 : 아시다시피 간도는 일본이 괴뢰민주국을 앞세워 조선을 집어삼킨 마법에 간도  
를 매물 형식으로 어물쩍 여기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딴니까 발해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엄연한 조선 땅을 말이죠...(뒤편에 지도를 작대기로 가리키며)  
당시엔 여기까지 우리 땅이었죠.

태 구 : 어이 독립운동 아저씨! 지도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신경  
끄세요. ( 아편연기가 입에 불어왔는지 갑자기 기침을 한다 )

보일 듯 말 듯 한 미소를 짓는 주인장.

태구의 흥은 역시 주인장을 겨누고 있지만 옆에서 시종드는 여인 둘에게는 많이 너그러운  
품이다. 여인들은 아편을 피워대기 시작한다. 자욱이 피어올라오는 아편 연기 속에서 주인  
장의 이야긴 계속된다.

주인장 : 선생님! 가지고 계신 지도는 민주국과 러의 숙원적 사업에 큰 종목을 표시 해 놓  
은 것으로서 이것이 진행될 시 삼국에 미칠 파급은 실로 엄청난 ...

태 구 : 이봐요 그게 무슨 얘기가. 역사 강의 하셨다 극제 관계로 넘어가셨다 그러네.

나는 그런 얘기 모르겠으니까...야 야 그만 좀 피대라... 풀 아프다.

지금 듣는 얘기도 풀 아파 죽겠는데...

태구는 옆에서 아편을 피워대는 여인들을 나무란다.

주인장 : 선생님... 지도는 조선의 앞날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은 조선 전체를 완전히  
집어 삼키고 대륙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제국주의의 야욕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구의 얼굴로 뿔어져 오는 아편 연기...

주인장 : 선생님이 가지신 그 지도는 힘이 없는 우리 조선의 미래의 힘인 이것을 우리가

착지해야만 하는데 이 마당에 우리가... 과연 우리는 무엇입니까?

태구: 약간의 약 기운이 느껴졌는지 느껴졌는지 부거위지며 고개를 이리저리 젓혀가며 한숨을 쉬고 있다. 주인공의 말도 자꾸 문턱과 내용이 바뀌는 것 같다.

태구: 그러니깐 주인공... 간단하게 말 좀 해봐. 너무 장황하잖아.

주인공: 지도를 넘겨주시면 선생님께서 상상하신 만큼의 대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태구: 호호호 그러니깐 특별군 아저씨가 지도가 가지고 싶으시다 .... 어휴 고관 좀 퍼!

약 기운이 술술 도는 태구.

주인공: 선생님께선 지도에 명시된 곳에 가신다 해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는다 한들...

태구: 하하하 우리 아저씨가 참 지도가 가지고 싶으신가 보다 그지? 가만.... 이 말 내가 하지 않았어? 내가 아까 했지? 호호호 아까 했구나. ( 툭툭 툭툭 ) 아이 애네들 고만쯤 피라고 아저씨가 말 좀 해줘. 애네들이 아편을 자꾸 피워대니까 나두 옛갈리잖아.

태구, 약에 취해서인지 양 옆의 여인들 어깨에 손을 두르며 즐거워한다.

주인공: 하여간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어도 우린 그 지도와 서류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 대사를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태구: 허허허 사람 참... 뭘 그런 걸 가지고.

태구, 자꾸 웃음이 나와 정신 차리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고 한다.  
옆에 여자가 태구에게 아편을 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피고는 다시 웃음을 참는다.

주인공: 왜 웃으십니까?

태구: 네? 웃어요? 네가요? 아님니다.

다시 설명하는 주인공. 다시 태구 웃음이 삐질삐질 나온다.

주인공, 태구를 잠시 용서한다. 태구, 그게 의식됐는지.

태구: 아니 가만 보면 (정색) 저 지도를 보면 말이요 (웃음) 꼭 조신이 말이오 (정색) 꼭 꼭. ( 그러다가 투쭈 하면서 웃음을 터트리고 만다 ) 꼭 토끼 같지 않아?  
프항하하 토끼. 토끼. 저게 전에도 앞발 뜯은 호랑이처럼 보였는데 말이... 응?  
지금은 토끼다. 응. 토끼 프항하하.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게 다 나랏일 한다는 놈들이 정신이 색어빠져서 그래요.

나라 다시 찾아도 정신 안 차리면 또 마친가처럼고. ( 다시 정색 ) 음 ... 그런데요.  
주인공: 네 ... 저는 조선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향에요.... 부모님이 일구던 땅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놈들의 등쌀에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은 고향엘 가보지 못한 모양이시군요.... 고향.

태구, 점점 더 약에 취하는 듯, 자신도 어떤 한 모금을 한다.

주인공: 봄이면 개나리가 만개하고... 여름이면 초록이 우거지며 가을엔 황금물결이 이는...  
태구: .... 그래 .... 그랬지. 작아도 참 이뻐야. . 응? 근데 왜 이렇게 됐지?

나라 빼앗기기 전에 참 좋았는데.  
황금물결이 일고.... 마을마다 밭 짓는 내음새가 경다웠지. 참 경다웠어.

태구의 눈에는 주인공 뒤로 마치 조신의 사체가 펼쳐지는 환상이 온다.  
이런 태구를 눈치 챘는지 주인공의 눈이 가늘어지며...

주인공: 선생님 그 지도 한 번 볼 수 없을까요? 과연 선생님이 가진 그 지도가 맞는지...

태구: 어? 하하하...지도? 어 가만 어딴더라. 내가 이 봄 땀에 내가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했어요오... 근데 이 사과 왜 이렇게 맛있게 맛있어요오? 입이 자꾸 마르니까 자꾸 먹게 돼.

아편 때문에 입이 자꾸 마르니까 입을 찹찹거리며  
주머니에서 뒤적뒤적 지도와 서류를 꺼낸다.

태구: 어 왜 안 나와? 이게 프항하 계속 고생시키네. 아휴 어지 때문에 내가 ...

내가 너무나 고생했어. 이..게 안 나와 .... 끝까지 ...았? 야 보인다 보여.

주인공: 네? 뭐가요?

태구: 황금물결. 들만에 황금물결. 와. 밭 타는 법새.

지도를 꺼내려고 버둥거리다 피하고 쓰러진다.

주인공, 눈치챈 태구 가방을 펴고 여자들이 쟁쟁거리며 태구를 어디론가 끌고 나간다.  
음침한 얼굴로 수화기를 드는 주인공.

주인공: ( 신호가 떨어지면 ) 나야 . 지도를 입수했으니 돈이나 두둑이 준비해 놓으라고 구  
로다 차판에게 알려라.

그때, 쿵쿵 쩍이야. 그리고 운태구는 돼지우리에 던져버려, 우리 새끼들 오렌만에  
사람 고기 맛 좀 보게 해야지.

### 77. 황금 물결. EXT. D

태구가 노랗게 물든 벌판에 무언가 감회에 젖은 듯 서있다.

바람 한 점도 불어와 태구 머리카락을 스치고 저 멀리서 모령의 여인하나가 태구를 향해 달려 온다.

태구, 그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음을 띠우고, 여자는 우아한 자세를 뽐내며 뛰어온다.  
여자, 사뿐사뿐 태구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태구의 귀싸대기를 때린다.

태구, 감각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면 또 한 번 반대편 뺨을 그대로 갈기는 여자.

78. 아편굴 / 쪽방 안. INT. N

태구, 계승준에 눈을 떠보면 귀시장과 이곳 아편굴에 오기 전 만났던 소녀가 태구의 의식을 뜰게 하려고 인속해서 발을 때린다.

소녀 : 일어나세요. 아저씨, 정신 좀 차리세요.

태구 : 음 ... 정분아 ... 음 ... 어? 너 ... 너가 왜 여겼나?

소녀 : 정신 드셨어요? 큰일 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태구 : 잉? 가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 가만 여기가 ... 어...

태구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귀시장의 조선족 아이들이 구석에서 웅크려 울러 있다. 너희들은? ... 하더니 갑자기 이게야 생각났다는 듯 몸에서 지도를 찾는다.

지도 없다. 총도 없다.

갑자기 소녀의 입을 물어먹는 태구. 인기척이 들린다.

태구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득이며 온 감각이 예민해진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태구는 두리번거리며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

폐지뱀 뚫는 손도끼와 폐지뱀 뚫는 쇠꼬챙이를 양손에 들고 문을 여는 명치.

문을 여는때 소녀 하나가 큰 눈망울을 불안하게 움직이며 명치를 쳐다보고 있다.

명치 : 너 뭐냐? 새로 온 애냐? 여기 있던 놈 어디 갔나?

태구 : 새로 오긴 뭐가 새로 왜? 내가 새로 왔다. 이 자식이야.

명치 미처 파악 제대로 없이 태구는 어떤 때는 곰방대를 가지고 명치의 통침을 그대로 뚫어 낸다.

명치 뚫 소리들 지르며 놀라서 무기를 놓쳐버리고 허둥댈 때.

태구 : 애야 논가라.

소녀 손으로 두 눈을 가리던 그대로 사커끼으로 통침 곰방대를 푹! 부서 박는다.

명치, 몇 번인가 몸을 꿈틀대더니 이내 뻗어 버린다. 대자로 뻗어 통침에 찔린 쇠 곰방대가 천정을 향해 우뚝 서 있는 광경이 자못 열기적이다.

태구 : 어? 지도 물어봐야 하는데 그대로 죽사했네. 아 이 새끼 명치는 산만 해가지고...

(소녀에게 손짓하며) 애야 쳐다보지 마. 나가자.

79. 아편굴 / 복도 - 계단 입구 ~ 복도. INT. N

태구, 명치가 떨어뜨린 도끼를 들어 살금살금 복도를 살피면서 걷는다.

창가에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어보면 거리는 한가하고 태구의 오토바이만 멍그러니 서있다. 친척이 자신이 쓰러졌던 방 앞에까지 다가간다.

계단을 통해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다. 벽 모서리에 작 달라붙어 손도끼를 움켜잡는다. 녀석의 얼굴이 코너를 돌아 딱 나오면, 손도끼를 힘껏 돌리는데 도끼가 반대쪽 벽에 찍히면서 남은 벽에 찍힌 채 자투만 휘 하고 휘두르는 꼴이 된다. 올라온 사람은 주인공이다. 지도를 보며 들어오다 불란 주인공 얼굴을 영검결에 가리다가 잠시 멈춘다.

태구 그러는 사이 주인공 손에 든 지도를 일문 찢는다.

영검결에 지도를 찢긴 주인공, 그런데 태구가 짧은 도끼자투만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칼을 꺼내 태구를 공격한다.

태구, 짧은 도끼자투로 연신 들어오는 칼을 막느라 정신없다.

주인장 : 뭐가 아무리 겁 없이 날뛰는 운태구지만 칼솜씨는 나한테 안 될 걸. 알!

주인장의 심복한 칼솜씨에 밀려 구석으로 물리는 태구 슬쩍 결눈으로 도끼를 보고 때내려고 하지만 잘 안 빠진다.

주인장의 공격은 더욱 거칠어지고 벽 구석까지 몰려 더 이상 갈 태가 없는 태구.

주인장의 찌르기 공격이 연거푸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펜싱 자세가 되는 주인공과 태구. 서로 펜싱 자세로 밀렸다 밀려났다를 몇 차례 반복한다.

태구는 연신 들어오는 주인공의 찌르기 공격을 막아내며 멍하니 지켜보는 소녀에게 포쟁이! 포쟁이! 하면서 무기를 달라고 한다.

소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태구는 밀리다 뒤로 넘어져 더 이상 방어마저도 못하게 되고

갑든 주인공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방을 날리려고 칼을 힘껏 드는데 갑자기

휘! 하면서 몸을 크게 한 번 요동치더니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면 주인공의 통침에 기다란 아편 곰방대가 박혀있고 그 앞에 소녀와 아이들 모두 힘을 합쳐 자못 비장한 표정으로 힘껏 통침에 박힌 곰방대를 잡고 있다. 주인공, 귀기한 표정으로 돌아보면 아이들이 어떡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서 있고.

태구 일어나서며.

태구 : 눈감아!!

소녀와 아이들 함등으로 눈 가리던 기합을 지르며 패밀리티를 차듯 달려오는 태구.

태구 : 끼야아오 !!!!

80. 평원 / 아편굴 ~ 판자촌. EXT. Dn

소녀와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달리는 태구.

81. 아편굴 / 복도. INT. M

이시하라 : (일본어) 내가 수많은 전쟁에 참여해 왔지만 이렇게 끔찍하게 죽은 시체들은 처음입니다.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일종의 변태가 아닐까요?

구로다 : (일본어) 지도는 찾았소?

이시하라 : (일본어) 못 찾았습니다. 또다시 강탈당한 것 같습니다.

구로다 : (일본어) 흠..... 이일을 어쩐다 ..... 이게 도대체 누구의 짓이오?

이시하라 : (일본어) 내 생각엔 독립군들과 연결된 마적단 것 같습니다. 그 연합진도 그렇고.

구로다 : (일본어) 마적단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관계를 한단 말이오?

이시하라 : (일본어) 가끔씩 무기류를 조진인 마적단들에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다 : (일본어) 항일분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면 .... 그럼 큰일이 되지 않소?

이시하라 : (일본어) 아 ..... 그렇습니까? ..... 그런데 .... 그 지도도 말입니다.

구로다 : (일본어) ?

이시하라 : (일본어) 도대체 그 지도는 무슨 지도입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2. 독립군 야영지 - 막사 INT. M / 81. 아편굴 - 복도. INT. M

※ 여기서 부터는 권 구분 없이 마치 한 권 안에서 독립군과 일본군들이 서로 대화 하듯 편집.

김 혁 : 유권시설이요? 틀림없소?

나 연 : 그렇습니다.

두 채 : 박도원이 또 엉뚱한 지도 가지고 개교생 하고 있구만. 프허히히.

황 씨 : 그 소문이 사실 이었군요.

구로다 : (일본어) 그렇소.

두 채 : 일본군들이 결사적으로 그 지도를 찾으려는 이유가 있었군.

나 연 : 그냥 단순한 유권시설이 아닙니다. 일제 최후의 전쟁 자금출입니다.

구로다 : (일본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이번 건은 친왕폐하의 염원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대 일본제국 미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마지막 사업이기도 한 것이오.

( 구로다 어두운 얼굴이 되어. ) 이시하라 대장!!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소.

황 씨 : 장군님!!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두 채 : 어찌 되었던 간에 일본에게 넘어가면 큰 낭패 아닙니까.

일본군들이 유권시설을 확보하기 전에 한시라도 서둘러 그곳을 파괴 하시지요.

나 연 : 제가 책임지고 그곳을 폭파 시키겠습니다.

피롤 보지 않고 승리를 얻을 순 없지 않습니다.

구로다 : (일본어) 모든 병력을 부르시오. 일본군은 만주군이든 상관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병력의 출동준비를 내리시오.

김 혁 : 음 ....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독한 전쟁이 될 것이오. 차 떠나시오. 지금 당장.

이시하라 : (일본어) ( 기립하며 ) 네!! 알겠습니다.

83. 부역 조선인 판자촌, EXT. D

황한 민지바람만 일어나는 부역 조선인들 판자촌.

이곳에 들어서면서 일찌감치 오토바이 시동은 끈 채 양다리로 어기적이기적 오토바이를 끌며 이곳저곳 예리한 시선을 보내며 주위를 살피고 있다.

태구, 덩춘다. 오토바이도 세우고 소녀를 번쩍 들어 내린다.

황한 민지 판자촌 부역 조선인들 낯선 이방인을 보자 겁을 먹은 듯 문들을 걸어 잠근다.

태구 이상한 김새를 자린다.

쌍권총을 들어 쿠도로 긴장된 모습으로 조선인 판자촌 거리를 천천히 걸어간다.

태구가 지나갈 때마다 여기저기 문을 닫거나 집안으로 숨어드는 조선인들.

조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태구.

꼬너를 돌리 친 꼬너 벽에 바싹 붙은 태구, 호흡을 가다듬으며 총을 들어 올리는데 맞은편에 도원이 사투 긴장한 상태로 유령마음처럼 보이는 황한 민지 판자촌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태 구 : 영?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너 혼자야? 왜 애꿎은 사람들 쳐주고 그러고 있어? 영?

도원, 말대꾸를 하지 않자.

태 구 : 너... 화났다. 그게 내가 그게 도망간 게 아니라...

도원, 태구는 본체만체 무시하고 그의 시선은 앞만 쳐다보고 있다.

도원, 코트저킷을 옆으로 좌 제쳐져 도원의 긴 라이플총이 나온다.

소매 단추를 채우고 사냥용 장갑을 끼는 도원.

태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멍뚱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태 구 : ....뭐하는 거야?

도원 : 내 옆에 서든가 아니면 떨어져.

태구, 그때서야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고 뒤를 힐끔 바라본다.

역시 형 빈 민지바람만 일어났다 사라지는 유령마음 같은 판자촌거리.

태구, 약간 긴장된 표정을 짓더니 손을 총 위에 올려놓은 채 천천히 뒷걸음친다.

그때 갑자기 피음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발아래 땅이 파이고 순식간에 들은 엄폐할 수 있는 곳으로 몸을 날리며 숨긴다.

태 구 : 뭐야? 어디지? 똥어?

도원 : 아니.

태 구 : ??

장 이 : 내가 말이다. 평생을 아주 옛같이 살다가 요즘엔 평생 못 받아본 복을 받은 기분이다. 지도 뽕겨간 눈을 찾았는데 그게 훨씬지윈수었던 말이지.

태 구 : 뭐 .... 뭐냐, 너?

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장갑을 벗으면 손가락 하나가 의수다. 놀라는 태구와 도원.

도 원 : (놀랍지만 황당해하는 웃음이 배시시 나오는데...) 일이 점점 재밌어지는군.

장 이 : 내 머릿속에 말이다. 어떤 옛 같은 기억이 하나 있어서 내 뇌를 꺼내서 깨끗한 물에 씻어서 도로 집어넣고 싶었거든. 그게 바로 오늘이다 이기지.

5년 전. 원산. 겨울밤. 기억나? 좋은 기억은 아니지. 난 하루도 잊은 날이 없다.

그때 난 너무 취했었다. 손 하나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해. 자, 진짜 승부를 내볼까?

태 구, 순간 놀라지만 천천히 고개를 잠시 숙였다 다시 고개를 든다.

태 구 : (씨의 웃으며) 나 조선 땅 떠나면서 다 잊었다. 너두 잊어라.

장 이 : 그게 쉽게 잊어지나.

태 구 : 그래서 넌 나한테 안 돼.

장 이 : 왜 그런지 알아나 볼까?

태 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앞으로 손을 쭉 내민다.

도원, 본능적인 반응으로 뒤로 물러서며 라이플을 태구에게 겨눈다.

태 구, 무시하며 주먹을 쥔 채 천천히 한 바퀴 돌려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한다. 바람이 불고 손을 피면 무언가 재가 되어 날아간다.

태 구 : 지도 없다. 날 죽이면 아무도 보물을 못 찾아.

장 이 : (프히히 웃으며) 역시 .... 대단하다. 손가락 귀신.

태 구 : 손보다 (머리를 푹푹 치며) 여기가 빨라야 살거든.

장이, 코트를 휙 제치고 옷소매의 단추를 채운 뒤 양손을 끼고 손을 푼다.

장 이 : 어쩔 수 없네. 다 갖느냐 못 갖느냐 문제구만. 항상 그렇지 뭐. 문제가 어려웠지 답이 어려운 적은 없었지. 답이 쉬워서서 좋네.

도 원 : 만담을 끝났나? 이제 진짜 승부를 내보지?

도원,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며 마치 싸움 구경이나 하겠다는 태도로 계단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도 원 : 누구든 한 놈은 살아나라. 내가 상대해 줄 테니까.

또 한 번 불만이 날아와 들은 금희 고개를 숙인다.

도 원 : .... 너 나가서 저쪽으로 뛰어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보게.

태 구 : ..... 이 마당에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도 원 : .....

태 구 : (도원의 라이플을 보며) 엠병 나투 장총을 하나 사던가 해야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봐라. 어느 쪽인지 (태구 심호흡을 크게 하고 뛰어났다) 말 고) ....그런데 그냥 끈장 뛰어가는 게 낫잖나, 아님 헛갈리게 했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게 낫잖나? (도원 아무 대꾸 없이 쳐다보자) ..... 내가 알아서 할게.

태 구, 하나 둘 셋 하면서 초소 쪽으로 뛰어가는 데 에스 자를 그리며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간다. 멍에 박히는 총알 위치와 전혀 상관없이 에스 자를 그리며 뛰어가는 태 구.

몸을 날려 어느 판잣집 울타리를 뛰어넘는데 영 쫄이 그렇다.

그걸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도원.

도원, 지붕 위에서 총을 쏘는 한 녀석을 발견, 조준하고 정확하게 맞춘다.

태 구, 고개를 들어 어디냐고 마임을 보내면 도원 손가락으로 저쪽 지붕에 하나 건너편에 붙어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낸다.

태 구 총을 꺼내 울타리를 다시 넘으려다 한 쪽에 작은 문을 발견하고는 문을 살짝 열고 나가 싹금살삼 도원이 가리킨 곳으로 가서 신다.

쳐다 밑까지 다다르 태 구.

처마와 지붕 사이에서 총을 겨누던 장이부하 밑에 태구가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고 바짝 긴장하며 밑으로 총을 겨누려고 무개 중심을 옮기다가 때겨 소리를 낸다.

헛! 하고 숨을 멈추는데 방망! 밑에서 쏘는 태구의 총에 발동이 멍뿔 풀린다.

쿵 떨어지면 바로. 확인 사살하는 태 구.

태 구, 또 어디? 하면서 도원에게 마임을 보내면 도원 갑자기 긴장된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 신다. 태 구 도원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데.

멀리서 포레바람이 일고 장이가 티벳터벅 걸어 나온다.

그러다 푹 멈춘다.

도원의 손이 움짤하다 그냥 멈춘다.

3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먼지바람이 또 한 차례 사이의 공간을 땀 풀다 사라지면 한동안 적막감이 감돈다.

장이 뒤로 여섯 일곱 명의 장이부하들 총을 일제히 꺼낸다.

장이만 서니 쉰만한 표정으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도원을 바라본다.

장 이 : 이곳이 못하게 따라다니는 구만. 사양꾼 양반.

도 원 : 뭐냐 썩은 냄새가 나야지.

장 이 : 그래 벌써부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네. 그런데 지금 년 아냐..... 순서를 바꿨거든.

도 원 : ?

장 이 : 오웬만이다. 윤태 구. 아니 손가락 귀신.

도 원 : ?

태 구 : 풍 죽어서를 안달이구만.

장이, 옆으로 걷다가 미결 위치에 탁 하고 신다.

입속털발의 초긴장된 상태.

똑같이 긴장하고 있지만 새 낚자의 표정의 위양스는 제각각 조금씩 다르다.

도 원 : ( 한가롭게 편한 자세로 앉아 혼자말로 ) 환상금이 배로 뛰었다.

태구와 장이, 손가락을 폼지락 거리며 잔뜩 긴장한 표정풀이다.

그때 무언가 지축을 미세하게 흔드는 진동 같은 것이 들린다.

세 사람, 동시에 느끼지만 서로들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옮기지 못한다.

진동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진동의 실체는 현실적인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

세 사람 어찌지도 못하는 상황.

장이 : 야

쌍 팔 : 네.

장이 : 뭐냐?

쌍 팔 : 알아보겠습니다.

쌍팔 부하 하나를 시켜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한다.

부하 하나, 짙싸게 판잣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멀리 보더니 망원경을 달라고 한다.

다른 부하가 품에서 망원경을 꺼내 줘 던져주는데 지붕위의 부하 망원경을 받으려고 손을 뻗치다가 이디션가 피음 소리, 가늘게 나는가 싶더니 딱 하고 지붕 위에서 떨어진다.

망원경이 빈 하늘에서 저 혼자 포물선을 그리다가 던져준 놈 손에 그대로 떨어진다.

부 하 : ?

장이 부하들 우르르 내려서 떨어진 부하 쪽으로 돌러가는데

그때 삼국파가 총들을 사방에 뿜뿜 쏘대며 말들을 몰아 엄청난 속도로 몰러온다.

그기세가 너무 엄청나서 태구 도원 장이파들 쫓겨,우로 확 갈라지고

병춘이 그 사이를 빠르게 관통하면서 떨거니 서 있는 태구와 눈이 마주친다.

태 구 : 병춘이?

병 춘 : 태구?

세 사람 영문을 몰라 어안이 병병해진 상태로 확 하고 무언가 쫓기듯 빠르게 지나가버리는 마적단들을 보며 멍하니 있을 때 마적단들이 온 방향에서 한 마리의 말이 마적. 마적단들을 쫓아오듯 진속력으로 오고 있다.

그 말에 송이가 타고 있다.

도 원 : 송이?

송이, 오면서 무언가 외치며 달려온다. ( ..... ) 가 물러와요 라고 외치며 오는데 앞의 ( ... ) 는 돌리지 않는다.

송이, 가까워지고.

송 이 : 빨리 피하세요! 일본군들이 물러와요!!!

도원, 장이, 태구 : 일본군???

세 사람 잠시 멍한 표정을 짓는데 멀리서 휘이이 하는 사운드가 들린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모두들 귀를 기울인다.

태 구 : 이게 무슨 소리지?

도 원 : 잠깐 모두 조용히 해봐.

태구, 어 ..... 이거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눈동자가 소리의 방향을 따라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할 때, 굉!!!!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빈 판자촌 하나가 박살이 나고.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확 퍼지면서 각기 도망칠 준비를 한다.

태구, 우왕좌왕 하다가 말에 오르지도 못하고 오토바이가 멀리 있는 관계로 사력을 다해 뛰 어간다.

장이도 재빠르게 말에 오르면서 태구를 놓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다.

도원은 송이가 타고 온 말에 올라타고, 송이는 자연스럽게 도원의 뒤에 탄다.

도 원 : 짹 잡아

송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 상관없이 부끄러워하면서 너무 좋아라하며 도원의 허리를 짹 겨 안는다. .... 송이 느낀다.

도 원 : .....

사이에 태구는 멀리니 나와 있는 강계 부역 조선족 소녀의 동생을 짹 돌려 울려 안아 뛰 어 가 소녀에게 인계하고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태 구 : 야 너희들 빨리 집으로 들어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기는 태구.

84. A. 대명원 / 만주군 폭. EXT. D

만주군들 태구도 병력을 이끌고 판저촌으로 향한다.

태 구 : 풍 죽어서를 안달이구만.

장이, 옆으로 걷다가 미결 위치에 탁 하고 신다.

입속털발의 초긴장된 상태.

똑같이 긴장하고 있지만 새 낚자의 표정의 위양스는 제각각 조금씩 다르다.

도 원 : ( 한가롭게 편한 자세로 앉아 혼자말로 ) 환상금이 배로 뛰었다.

태구와 장이, 손가락을 폼지락 거리며 잔뜩 긴장한 표정풀이다.

그때 무언가 지축을 미세하게 흔드는 진동 같은 것이 들린다.

세 사람, 동시에 느끼지만 서로들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옮기지 못한다.

진동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진동의 실체는 현실적인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

세 사람 어찌지도 못하는 상황.

장이 : 야

쌍 팔 : 네.

장이 : 뭐냐?

쌍 팔 : 알아보겠습니다.

쌍팔 부하 하나를 시켜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한다.

부하 하나, 짙싸게 판잣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멀리 보더니 망원경을 달라고 한다.

다른 부하가 품에서 망원경을 꺼내 줘 던져주는데 지붕위의 부하 망원경을 받으려고 손을 뻗치다가 이디션가 피음 소리, 가늘게 나는가 싶더니 딱 하고 지붕 위에서 떨어진다.

망원경이 빈 하늘에서 저 혼자 포물선을 그리다가 던져준 놈 손에 그대로 떨어진다.

부 하 : ?

장이 부하들 우르르 내려서 떨어진 부하 쪽으로 돌러가는데

그때 삼국파가 총들을 사방에 뿜뿜 쏘대며 말들을 몰아 엄청난 속도로 몰러온다.

그기세가 너무 엄청나서 태구 도원 장이파들 쫓겨,우로 확 갈라지고

병춘이 그 사이를 빠르게 관통하면서 떨거니 서 있는 태구와 눈이 마주친다.

태 구 : 병춘이?

병 춘 : 태구?

세 사람 영문을 몰라 어안이 병병해진 상태로 확 하고 무언가 쫓기듯 빠르게 지나가버리는 마적단들을 보며 멍하니 있을 때 마적단들이 온 방향에서 한 마리의 말이 마적. 마적단들을 쫓아오듯 진속력으로 오고 있다.

그 말에 송이가 타고 있다.

지프차 맨 앞의 이시하라 대장 망원경을 들어 판자촌을 보던 그 옆의 부관도 망원경으로 그  
들을 본다.

태구, 삼국파, 장이, 도원이 우왕좌왕 하며 뿔뿔이 갈라져자.

아베부관 : (일본어) 누굴 쫓을까요?

84. B. 대평원 / 삼국파 쪽. EXT. D

정신없이 도망가던 장취, 말을 급히 끊고 병춘에게 다가간다.

장 취 : (중국어) 야 저놈 지도 갖고 있던 놈 아니?

병 춘 : (중국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장 취 : (중국어) 그럼 저놈 잡아가지 어디가는거야?

병 춘 : (중국어) .....네 .... 잡아야죠.

삼국파, 말머리를 급격히 돌려 오던 속력으로 태구를 쫓는다.

84. C. 대평원 / 장이, 도원. EXT. D

장이파들도 태구를 쫓고,

도원도 태구를 쫓아간다.

84. D. 대평원 / 태구. EXT. D

태구, 자신을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뒤를 힐끔 힐끔 보더니

태 구 : 아 시발 .....

84. E. 대평원 / 만주군 쪽. EXT. D

망원경을 보던 이시하라.

멀리서 보면 정점인 태구를 쫓아 새 방향에서 만지를 일으키며 칠새들 날아가는 모양을 하  
고 있다.

이시하라 : (일본어) (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태구를 가리키며 ) 저놈이 대장이다.

아베 : (일본어) 네!!!

아베 뒤를 향해 무언가 깃발로 지시를 내리고,

어머어머한 태구도 병력이 태구를 쫓아.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84. F. 대평원 / 항공사. EXT. D

하늘에서 보면 드넓은 평야에 태구를 정점으로 엄청난 인원들이 태구 하나를 쫓아가며 일대  
장관을 이룬다.

84. G. 대평원 / 삼국파, 장이파. EXT. D

삼국파, 태구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장이, 태구를 향해 총을 쏘는 삼국파에게 총을 갈긴다.

병 춘 : 아이 저 새끼 뭐야?

삼국파, 장이 쪽으로 용사한다.

삼국파와 장이파들 달리면서 총격전을 벌이면서 몇몇 부하들 말에서 떨어져나간다.

상 칼 : 쏘지 마!! 태구 쏘지 마!!

병 춘 : 뭐?

상 칼 : 지도 없어!! 지도 없다구!!

병 춘 : 뭐라는 거야?

병춘, 부하 하나에게 장이 쪽으로 갔다 오라고 지시하던  
진속력으로 태구를 쫓아가는 도중에 장이 쪽 부하와 삼국파부하 하나가 중간지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장이 부하는 조신희이고 삼국파는 러시아어가 와서 소동이 잘 안 된다.

장이부하 : .....뭐야 이 새끼.

병춘부하 : ( 러시아어 ) 너 러시아말 못해?

장이부하 : 너 그림 조신희말은 할 줄 알아?

병춘부하 : ( 조신희말 ) 조금 해.

장이부하 : 지도 없다꼬! 그러니까 저 앞에 가는 놈 쏘지 말라고 이 병신새끼.

병춘부하 : ..... ( 말을 숙지하려는 듯 생각에 잠기다가 조신희말로 ) 나가 병신새끼다.

서로 어이없던 표정으로 쳐다보다 말머리를 찍 돌려 다시 자기 진영으로 들어간다.

병춘 부하, 병춘에게 사실을 알리면 병춘은 손으로 휘휘 저으며 태구에게 총을 못 쏘게 한다.

병 춘 : (중국어) 쏘지 마 !!! 생포해!!

장 취 : ??

84. H. 대평원 / 태구. EXT. D

총성이 멈추자 태구 뒤를 힐끔 보다가 새의 웃으며 오토바이의 속력을 더 낸다.

태구, 신나게 달리는 데 옆을 휘 보자 어느새 삼국파 하나가 옆에 와 있다.

눈이 마주치자 그 삼국파, 흉측한 색은 이빨을 드러내고 새의 웃는다.

태구 기만. 쳐다보다가 총을 들어 방 쏜다.  
말에서 나가떨어지는 삼국파.

병 촌 : 오토바이 몇척!! 병신새끼들아!!

마적단을 일제히 오토바이를 밟추려고 사격을 한다.  
도원, 그런 마적단을 라이플을 들어 정확한 샷으로 한 명 한 명 떨어뜨린다.  
마적단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 그냥 창이 죽에다 응사한다.  
서로들 총질하면서 이수라장 상태로 계속 태구를 향해 달려간다.  
태구, 오토바이 뒤쪽으로 명령 하면서 총알이 휘면서 속도가 좀 줄어들어드는데  
뒤를 보면 마적단들 중 지프차를 탄 부하들이 가깝게 붙는다.  
지프차 뒤에 탄 마적단이 손에 바늘을 든 상태로 말 그대로 생포하려고 한다.  
태구, 바늘 마적단을 힐끔 보고 그 지프차를 보더니 훨씬 신형차이자 마적단이 풀려 뛰어올  
때 동시에 반대 지프차로 불췌 넘어간다.  
빈 오토바이에 올라타고만 바늘 마적 어? 어디 갔지? 하는 표정을 짓다가 그대로 처박히고  
지프차를 운전하던 마적도 지프차 밖으로 나가떨어진다.

84. I. 대평원 / 만주군, 삼국파, EXT. D

일본군들 지프차에 올린 박격포로 쏜다.  
여기저기 광활 터지며 일대가 이수라장 폭발이 되어버린다.  
장췌, 더욱 말의 속력을 내고 태구 쪽으로 박격 쏜다.  
월희가 달린 쇠사슬을 들어 휘휘 돌리다가 날리면 태구 지프차의 앞유리가 박살난다.  
장췌의 공격은 강도를 높여 열미와 태구 옆으로 파파 찍었다 빠지고 반박한다.  
그러다가 또다시 휘이이 소리가 나자 장췌가 공격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포탄 하나가 정확하게 장췌 머리 위로 떨어진다.  
황!!!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장췌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허걱 하는 태구, 뒤를 보면 탄약들이 쌓여있다. 포탄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려고 더욱 속력을  
내고 뒤에서 장췌의 추음을 본 마적단들 하나둘씩 속력을 줄인다.  
병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냥 말머리를 돌려 다른 길로 빠진다.

85. 작은 동산 터널, EXT. D

현참을 일본 군대에 쫓기며 달리던 태구 진방에 터널이 나온다.  
창와와 도원은 이미 일본군용 차량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좁은 계곡길로 빠져들었고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태구.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지프차를 세우고 재빨리 탄약통을 꺼낸다.  
점점 일본군들은 가까워져 오고 후약을 설치하는 데에도 일본군들의 총탄들이 피용피용 쏜  
다. 어림사리 폭탄을 설치한 태구 지프차에 올라타 탄약통을 향해 총을 쏜다.  
터널을 통과하려는 의도란 걸 안 일본군들 필사적으로 태구를 향해 사격을 하는 바람에 태  
구 통과시키는 데 여의치가 않다.

86. 터널 옆 계곡, EXT. D

그 모습을 계곡 사이에서 내려다보던 도원, 말에서 풀쩍 뛰어내려 앉아 썩 자세로 라이플  
탁 거치시킨다. 마치 스나이퍼처럼. 태양. 계곡 사이를 울리는 라이플 소리에 터널을 통과하  
려던 일본군들 안 되겠다 싶어진지 뒤로 후퇴하느라 아우성이다.  
첫 번째 발은 탄약통 약간 위를 맞춘다. 두 번째 태양 소리에 동시에 엄청난 폭발음과 터널  
이 무너지면서 터널에 걸쳐 있던 일본군들이 흩더미에 파묻힌다.  
그걸 본 태구는 넵다 지프를 몰고 도망가고.

87. 터널 옆 한쪽 협곡, EXT. D

한쪽 협곡 사이에서 창이, 폭발음에 놀라 쳐다보다가 이수라장이 된 일본군대와 건너편의  
도원을 쳐다보고는 도원의 숨색에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머리를 돌린다.  
도원, 다시 말에 올라타고.

88. 몽라주.

A. 황야 / 태구 어디쯤 1. EXT. D 태구 어디론가 달리고.  
B. 황야 / 도원 어디쯤. EXT. D 도원과 송이도 어디론가 달리고.  
C. 황야 / 창이 어디쯤. EXT. D 창이도 어디론가 달린다.  
D. 터널 근처 / 산길 EXT. D 진열을 재정비하고 산을 넘는 일본군대..

89. 황야 / 태구 어디쯤 2. EXT. D

멀덜거리는 지프차,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일어나며 부르르 떨더니 멈춘다.  
지프차에서 내려 차를 점검하다 움직일 가망이 없자 옆에 찬 가방에 탄약 몇 개를 집어넣고  
는 달리기 시작하는 태구.

90. 황야 / 태구 어디쯤 3. EXT. D

하늘에서 점으로 보이는 태구, 작렬하는 태양 아래 필사적으로 달린다.  
얼마나 달렸을까 목까지 차오르는 숨을 힐끔이며 옆구리를 움켜쥐고 잠시 멈춘다.  
숨을 고르고 사방을 둘러본다.  
사방은 가없는 지평선만 보이는 황량한 벌판만, 움직이는 것은 바람과 흩먼지뿐이다.  
말 한마리가 색어 문드러진 채 앙상한 뼈만 드러내 쓰러져 있는 게 보인다.  
수통을 열어 물을 벌췌벌췌 들이키지만 물도 얼마 남지 않아 금방 빈 통이 되고 만다.  
수통을 흔들어서 물이 튀고 휘 하고 던져버린다.  
하늘과 땅엔 독수리들이 자신이 시체가 되기를 기다리듯 주위를 신회하고 있다.  
총을 꺼내 독수리를 향해 총을 쏘서 쫓아버린다.  
후다닥 하늘로 오르는 독수리 떼들.



태구, 숨을 고르다 풀린 신발 끈을 내려다본다.  
멍하니 풀린 신발 끈을 내려다보다 지친 심신을 잠이깨듯 신발 끈을 단단하게 묶는다.  
정그린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다 어디론가 또다시 뛰기 시작한다.

#### 91. 향야 / 삼쿠과 어디쯤. EXT. D

거의 패잔병처럼 보이는 병총과들 지친 표정이 역력한 새 터벅터벅 발을 타고 걷는데

병총 : ..... 어떡했으면 좋겠냐? 두목도 없고..... 돌아갈까?

부하 : 부두목이 이제 우두머리니까 부두목이 경하슈.

병총 : ..... ?

지병신 팔에서 먼지가 일어나며 부인가 스릴스릴 들려오는 게 보인다.

점으로 보았던 게 조금씩 실체를 보인다.

독립군들이다.

병총 : 저거 누구냐?

부하 : 글썽요?

눈을 찌푸리며 쳐다본 병총 갑자기 상체를 엉겁결에 숙이는데. 멀리서 나는 망! 소리와 함께 병총 뒤에서 멍하니 쳐다보던 부하 하나가 피하고 쓰러진다.

놀란 마적단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흩어지며 도망친다.

병총 : 야 흩어지지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 92. 향야 / 태구 어디쯤 4. EXT. D

뛰는 게 뛰는 것 같지 않은 태구의 몸이 지치고 무거워졌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뛰어가는 듯한 모습. 뛰면서도 좌우를 휘둘러보며 뛰다.

뛰다가 문득 멈춰서는 태구. 멀리 마주보는 인명 사이에 낮은 기건물이 보인다.

태구의 표정에 보일락말락한 미소가 보인다.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보면 엑스자 표시되어 있는 곳과 일치한다.

낮은 언덕 사이의 기건물.

더욱 힘을 내는 태구. 일들과 뜬은 말이 아니다.

#### 93. 정유사실 / 동산 아래 - 노출 전, 후 EXT. D

태구 : 여기 맞는 거 같은데 .....

태구, 주변의 지형지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본다.  
망원경을 들어 주변을 둘러본다.

한참을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젓어낸 지도도 일부러 보고 직선으로 오십 보 정도를 가다가 다시 좌향과 하더니 다시 카운터  
를 세며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딱 멈춘다.

다시 45도 정도 틀어서 스무 걸음 정도를 걸다가 다시 멈춘다.

그리고 주위를 살핀다.

바람만 부는 제막한 향야.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뭔가 있음직한 곳은 보이지 않는다.

태구, 막막해진다.

그동안의 피로와 탈진 상태의 심신이 기진맥진하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태구 : 도대체!! 왜?? 왜!!

태구,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풀썩 무릎을 꿇는다.

태구, 눈을 감는다. 명상하듯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다시 뻗쳐 본다.

아딘가를 한참 노려보며 주시하더니 벌떡 일어나 돌무덤으로 달려간다.

말대거리 때가 놓여 있는 돌무덤 앞에 서는 태구.

뿔을 헤치더니 망을 파기 시작한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망을 파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파헤치자 자물쇠가 채워진 파이프관이 나오고.

태구 : ???

태구, 길게 생각하지 않고 총을 꺼내 자물쇠를 향해 몇 발을 쏜다.

자물쇠를 발로 걸어차고 막힌 파이프관 뚜껑 안을 들여다보고

태구 : 뭐야 도대체. 보물 창고야?

태구,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톱질거리며 냄새도 맡고 귀를 대보기도 한다.

그때 어디선가 많이 푸드득 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사방을 둘러본다. 아트막한 동산, 저 멀리 지평선들을 바라보다 부인가 아른거리는지 망원  
경을 들어서 본다. 다시 한 번 이리저리 망원경으로 둘러보는 태구.

그런데 부인가 망원경 한가득 호탕하게 잠인다.

망원경 렌즈를 연속적으로 돌리면서 포커상을 해보지만 잘 안 잠인다.

뭐지? 하는 표정으로 망원경을 내려 보려 보면 도원이 바로 앞에서 라이플을 겨누고 서있다.

태구 : 아이 짱악야!!

도원 : 이게 그만, 넌 여기까지.

태구 : 야- 대단하다 박도원. 여기까지 쫓아오고.

도원 : ( 손에 든 지도를 펴고 ) 참대거리 하고는 .....

태구 : 으헤헤 내가 그걸 어떻게 외우겠나.

도원 : 차 좋 버려.

태 구 : 에이 장난치지 마.  
 도원 : ( 활각 장전하며 ) 장난처럼 보이나?  
 태 구 : (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지며 ) 근데 ..... 이 새끼가  
 태구, 도원을 노려보다 도원의 라이플을 순식간에 한손으로 치더니 총을 꺼낸다.  
 도원도 순간적으로 라이플 개머리판으로 태구의 총 든 손을 치고 돌이 엉겨 붙는다.  
 둘은 마치 개싸움을 벌이듯 엉겨 붙어 땅바닥을 몇 차례 구르다가 비탈길로 구르면 갑자기  
 파이프관에서 무언가가 쇠소리가 들린다.  
 도원의 턱살을 찔렀던 손을 놓고 파이프관 쪽으로 뛰어가는 태구.  
 파이프관 안을 들여다보다. 그것없이 뒤로 도망친다.  
 그때 파이프관을 통해 하늘 높이 치솟는 검은 액체.  
 태구, 떨어지는 검은 액체를 거의 뒤집어쓰다시피 한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땅이 쭉 꺼지면서 정유시설의 일부가 드러난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광경에 도원도 당황스럽게만 한 표정이다.

태 구 :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석유야? 응? ( 풍뎡 냄새를 맡더니 ) 진짜 석유데?  
 아니 이게 ..... 보물이 아니고 석유였어?  
 땅방한 표정의 두 사람, 높이 치솟던 검은 액체가 조금씩 낮아져 파이프관 위에서 벌떡벌떡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망연스레 바라만 볼 뿐이다.  
 동시에 두두두 지축을 흔드는 소리에 뒤돌아보면 창이파를 맡을 타고 총을 쓰며 달려온다.  
 둘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떨어지며 각자 총들을 집어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응사한다.  
 창이파를 태구와 도원의 반격에 더 이상 진전 못하고 말머리를 붙여 동산 쪽으로 이동한다.  
 그 틈에 태구와 도원이 각자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서로 총질을 하며 동산 밑으로  
 뛰어간다.

태 구 : 와 저 지독한 새끼 여기까지 따라오나. ( 반대방향으로 뛰어가려는 도원을 보며 ) 저  
 새끼도 지독하고 ..... 어떻게 여긴 전부 지독한 새끼들뿐이나.

94. 정유 시설 / 동산 위. EXT. D  
 창이와 쌍갈, 몇몇의 부하를 동산으로 말을 몰아 올라간 뒤 뛰어내려 물을 숨긴다.

창 이 : 야, 저거 뭐냐?  
 쌍 갈 : 석유시설 같습니다.  
 창 이 : 보물이 아니고 석유시설이야?  
 쌍 갈 : 네 .....

창이, 입맛을 다시며 아이었다는 듯 시니컬한 웃음을 짓는다.

창 이 : ..... 누가 이길 것 같냐?  
 쌍 갈 : 네?  
 창 이 : 윤태구랑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임마.  
 쌍 갈 : 두루입니다.  
 창 이 : ( 새익 웃으며 ) 새끼 ..... 다들 모여 봐.  
 몇 명 안 남은 부하를 창이 앞으로 모이면 작전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두세 패로 나누어 조  
 급씩 밑으로 이동한다.

첫-  
 태구 동산 밑에 붙어서 얼굴을 배품 내밀던 바로 흠뻑 앞에서 총란이 튀며 태구 얼굴에 흠  
 먼지가 확하고 인다.  
 얼굴에 분월한 모양 먼지를 뒤집어쓰며 채찍 하며 침을 뱉는 태구.

첫-  
 그 모습을 건너편에서 본 도원, 짙길 거리다가 라이플을 짱 쥐며 전진 하는데 누군가 바위  
 모퉁이에서 쾅 뛰쳐나오면 방하고 쓰러트리고 순간 뒤쪽에 인기척이 느껴지자 바로 도는데  
 쌍갈의 칼이 도원의 총보다 먼저 확하고 원을 그린다.

어쨌죽지가 쾅 찢어지며 도원, 라이플을 놓친다.  
 라이플을 잡지 못하게 건어차고 연이어 빠르고 유연한 뒤돌려차기로 도원의 얼굴을 가격하  
 면 도원 나가떨어지고 몸을 주저 않고 칼을 손목으로 유연하게 둘러며 내리치려 할 때 쾅!  
 소리가 나며 쌍갈의 칼을 받는 송이의 주방용 칼!

흔칫 놀라는 쌍갈.  
 다시 날아오는 송이의 칼.  
 쌍갈의 칼손목도 고수의 솜씨지만 쌍갈을 압도하는 송이의 칼솜씨.  
 주방에서 익힌 칼날임이라 정통의 쌍갈 망췌하고, 어쨌든 쉬지 않고 돌아오는 송이의 칼을  
 막느라 정신없는 쌍갈.

쌍갈의 다리 허벅지 어깨에 쉴 새 없이 송이의 칼이 들어온다.  
 쌍갈, 송이의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공격에 칼을 놓치고 허둥대다가 비장의 무기인 단검을  
 들어 던지려 하는데 방 하는 소리와 함께 도원의 라이플에 불꽃이 핀다.  
 쌍갈, 한방에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언덕 아래로 추락한다.  
 그때까지 무자비하게 칼을 쓰던 송이, 세초품한 표정으로 부끄러운 듯 도원을 바라보고.

첫-  
 조심스럽게 언덕 쪽으로 올라가는데 멈춰서는 태구. 친척히 뒤돌아보면 창이파 부하들 서너  
 명이 등을 보이고 있다.  
 태구, 숨을 머금는다. 조심히 총을 건벨트에 집어넣더니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본다.  
 다시 쌍관총을 잡고.

태 구 : 아이.

부르는 소리에 경지하는 창이파 부하들. 목덜미에 식은땀이 배인다.  
순간 몸을 뒹 둘러는데 태구의 생권총이 연발로 불을 쏘는다.  
방 향 방

그런데 태구의 생권총 총 쏘 하나에서 철컹하는 빈 소리가 들린다.  
휴먼지를 일으키며 추풍낙엽 떨어지듯 비탈길로 둘러 떨어지는 부하들. (솔로우 모션)

첫-

인덕 아래로 떨어진 부하들과 쌍칼을 내려다보며.

근경에 처할 때마다 짓는 복수의 건조한 표정, 미간을 손뭉으로 누른다.

몇 명 안 남은 부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이를 보고 창이는 쌍칼이 없는 부하들이 갑자기  
오합지졸처럼 느껴지며 밀레마에 빠진다.

명한 표정의 창이 갑자기 부하들에게 난데없는 이상한 명령을 내린다.

창 이 : 야 너희들 저거 하나씩 들고 알아서 도망들 가라.

부하들 : 네?

창 이 : 저거 하나씩 들고 고향이나 가라고 자식들아.

부하들,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다가 할 수 없이 굼뜨게 몸을  
일으키며 돈 보따리를 하나씩 드는데 창이 친철히 일어나 총을 든다.  
탕 탕 탕.

첫 -

도원파 송이, 총소리에 놀라 고갯 돌리던.

도 원 : 아- 운태구 - 살아있는 거야?

대답 없는 운태구.

첫-

창이, 자기 앞에 쓰러진 부하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본다.

총알을 총에다 깨작깨작 넣고는 품안에서 위스키를 꺼내 한 모금 마시고 마개를 닫는다.

창 이 : 말해라. 운태구-- 살아있다고.

첫-

운태구, 바위틈에 몸을 바짝 기대고 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친철히 몸을 움직인다.

저 멀리서 창이가 홀연히 나타난다.

태구, 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겨보지만 텅 빈 소리만 들 뿐 발사되지 않는다.

다른 한 총을 꺼내 탄약을 확인해보지만 총알은 단 한 발만 남아있다.

어떡해야 하나 주위를 둘러보지만 추수무죄이다.

긴 한숨을 내쉬며 풍산 아래 정유시설을 무감하게 바라본다.

## 95. 정유시설 / 풍산 아래 - 노출 후 EXT. D

도원, 내려오고 건너편에 태구도 씨의 웃으며 나온다.  
서로 바라보고 있다. 도원, 아무 말 없다가 뒤를 돌아보면 창이 서있다.  
도원, 창이와 태구를 번갈아 보다가 친철히 앞으로 걸어간다.  
도원이 걷다가 탁 서면, 도원, 창이, 태구가 삼각형을 이룬다.  
멀리서 돌풍이 일고.

태 구 : 인생, 끝까지 꼬이는 구만 (창이에게) 어이, 박창이 이 지긋지긋한 놈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냐?

창 이 : (피식 웃으며) 누가 최고인지 제대로 가려내야지.

태 구 : 그래. 너가 최고다. 됐지?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최고를 가리던 말든 해.  
나 간다. 안녕.

발을 옮기려할 때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새로 구입한 태구 모자의 뒷부분이 날아가  
자 태구, 멈춰 선다. 부클부클 끊어오르는 태구.

태 구 : 근데 .... 이 자식들이 또 나를 건드네.

창 이 : 전설을 만들어야지. 전설을! 그렇게 가면 되나.

태 구 : (돌아서며) 글썽 넌 나한테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넌 존중해서 안 돼.

창 이 : (피식 웃으며) 전설 속에 패자로 기억 되느니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이거지 ...

그나저나 박도원, 난 너한테 빚진 것도 같을 것 없는데.

도 원 : 아니 최고가 되려면 나두 소아야 될 걸? .... 살아남아야 되니까.

창 이 : 결국 한 놈만 살아남겠군.

도 원 : 살아남는 한 놈이 다 가져가는 게임이지.

태 구 : .... 너희들 이러는 게 재밌냐? .... 곧 후회 하게 될 거다.

태구, 비장하게 마지막 말을 내뱉고 주위를 둘러본다. 다른 총을 주우러 가기에 거리가 멀  
고 누굴 먼저 쏘아야 할 지 경리는커녕 머릿속이 험클어진다.

도원, 약간 태구에게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다.

도 원 : (태구를 바라보며) 손가락 귀신, 누굴 먼저 쏠 건지 정했나?

태 구 : (고민하다가 씩 웃으며) 정 가는 놈 먼저 쏠 거다.

창 이 : 차 그림 진짜 승부를 내볼까?

도원파 창이, 씨의 웃고 창이 코드를 확 체치면 세 사람의 표정에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진  
다. 바람이 불고 말뚝이 서로 서로를 쳐다보는 세 사람.

세 사람 사이로 돌풍이 일어 마른 먼지를 확 하고 일으키며 사라질 때쯤.

창이, 친철히 손을 들어 건벨트의 단추 하나를 푼다.

맞은편에 태구도 건벨트 가까이 손을 이동하면서 손을 풀듯 조금씩 폼지락 거리며 상대편의

움직임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 긴장하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다가 천천히 시선을 우측으로 돌린다.

도원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는 표정으로 태구와 태양을 동진 장이를 번갈아 본다. 카메라 빠지면 세 사람의 대결구도.

퍼리가 봉봉 소리를 내며 명바닥에 널브러진 몇 구의 시체위에서 날아다니고, 바람 한 점도 풀리지 않는 푸연 흙먼지를 일으키고 지나간다.

몇가에 스치며 들리는 바람소리가 휘휘 소리를 내는데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들린다. 곧 바로 터져버릴 것 같은 숨 막히는 긴장감과 격막감이 감돌고.

서로서로 미세한 움직임에도 음방이라도 총을 뽑을 것 같은 긴장감 어린 세 사람의 표정이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포착된다.

태구 누구를 먼저 쏘아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유독 태구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휘휘거리는 바람소리, 또한 날아오는 소리처럼 점점 커지더니 이내 광폭한 돌풍이 한차례 일어나 사라질 때 창이, 속사수처럼 총을 뽑는다.

태구도 번개 같은 숨새로 총을 뽑는다. 동시에 도원의 총에도 불이 뿜는다.

땀! 땀! 땀!  
정적.

송이가 멍한 표정으로 그 세 사람을 바라본다. 창이가 먼저 세의 옷으며 총을 휘둘러 돌리면서 건 벨트 총지갑에 집어넣는다.

갈증이 나느니 안주머니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는데 위스키 병에 구멍이 나있고 술이 줄줄 샌다. 창이, 줄줄 새는 위스키 병을 보다가 가슴에서 피가 번져오는 것을 내려다보더니, 위스키 병을 툭하고 놓친다.

창이 : 정말 어이가 없군.

창이, 다리가 휘청하면서 옆으로 툭 하고 쓰러진다.

태구, 쓰러진 장이를 내려다보다가 슬며시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도원 : .....  
태구 : ..... 너가 날 쫓냐? .....왜?

도원 : ..... 손가락 귀신을 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태구 : .....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라도 있는 거냐?

도원 : 먼저 움직인 눈을 쫓을 뿐이야. 널 쏘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테니까.

태구 : ..... 그렇군. 넌 내가 쓴 조산봉 중에 가장 냉정한 놈야.  
송이, 창이파 애들이 타고 온 말들을 가까이 끌고 오며.

송이 : 와요. 일본군들이 와요.

도원 : 상처가 낫지 않아..... 살 꺼면 지금 떠나는 게 좋아.

태구 : 사는 게 지옥이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조선땅이나 여기나. ...

난 그냥 내 몸 하나 먹고 살려고 바둥거리다 이저 이저 해서 여기까지 온 것뿐인데 이콧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 부탁 하나 들어주라.  
우리 할매한테 나 인사도 못 드리고 고향 갔다고 전해 줘.

도원, 그런 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 한 필과 태구 몫으로 창이파들의 돈 보따리 하나를 남겨두고 말에 올라탄다.

도원 : 살아남아서 니가 전해. ....  
태구 : 후후.....그런데 왜 난 장이를 기억 못했을까?  
도원 : ..... 기억은 패배자의 몫이니까.

잠시 태구를 바라보다가 말머리를 돌리며 떠나는 도원과 송이.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서서.

도원 : 야 윤태구. 증근한 게 하나 있는데 창이 쓰고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날 안 쓴 거냐?  
태구 : ( 킬킬 웃으며 ) 잠시 고향 생각 하고 있었다.

도원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다가 그냥 피식 웃고 박차를 가하며 달리기 시작한다.

96. 정유시설 / 원경샷. EX.T. D

태구만 멍그러나 혼자 있고 일본군들의 반대편으로 전속력을 다해 달려가는 두 사람. 반대편에선 일본군들이 물려온다.

97. 정유시설 / 동산 아래 - 노출 후 EX.T. Dk (황혼)

태구, 계속 앉아 있다.  
떠나가는 도원과 송이와 멀리서 물려오는 일본군들을 쳐다보는 태구.  
그러다가 무연가 생각이 떠오른 사람처럼 창이 시체를 질질 끌고 정유시설 쪽으로 힘겹게 간다.

가방에 넣어두었던 다이너마이트도 가지고 온다.  
일본군들 점점 가까워지고.  
창이를 땅이 들지않게 꺼져 음푹 파인 정유시설 밑으로 밀어 넣는다.

태구 : ( 창이를 바라보며 ) 나한테 없는 기억이 날 쫓아올 진 물렸다.  
자신 몫으로 남겨둔 돈 보따리도 밀어 넣는 태구.  
일본군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태구는 재빠르게 가방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꺼내 정유 시설 여  
기저기에 놓고는 선을 길게 뽑아 불을 붙인다.  
타들어가는 다이너마이트 선을 무감하게 바라보다가 돈 보따리를 풀어 지폐를 꺼내 반으로

나누며 자기 주머니와 장이 주머니에 나누어 넣는다.

태 구 : 이런 황천길 노잣돈이다. 자식이야.

돈을 장이 주머니에 집어넣다가 무언가 안쳐지면 꺼내서 가족함을 열어본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는 태구.

창이가 김판주 금고에서 가지고 나온 보석 가족함 안 다량의 다이아몬드.

그 중 하나를 꺼내서 손으로 문지르면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이때 갑자기 삼의 의욕을 되찾은 듯한 표정의 태구. 고개를 돌려 다이아몬드 선을 본다.

후다닥 일어나 다이아몬드 선을 끌려고 손과 발로 재빠르게 탁탁 치며 겨우 하나를 끈다.

하나는 졌다. 재빨리 건너편 다이아몬드 선을 본다.

팔팔 타들어가는 다이아몬드 선.

태 구 : 이런 니기미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다 칠력하는 소리에 위를 올려다보면 비탈길 위를 수백 명의 일본군들이 총을 겨누며 태구를 에워싸고 있다.

이시하라와 태구 눈이 마주치고, 태구가 불을 끄려다 못 큰 엉거주춤한 자세로 다이아몬드를 타들어가고 있다고 이시하라에게 사인을 보낸다. 태구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는 이시하라.

카베라 부감으로 뜨면 일시에 기적하며 돌릴듯 돌아지는 일본군들.

태구, 엉겁결에 장이 시체를 끌어당겨 응색하게 방패처럼 막을 때.

98. 황 야 / 도원, 독립군 EXT. Dk (황혼)

도원 달리는 앞모습 저 멀리 뒤로 실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하늘 한가득 화염이 펼쳐질 피었다가 사라진다.

멈추는 도원.

도원, 반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유진시절 쪽을 바라보다가 품에서 포스터를 꺼낸다.

창이와 태구 포스터를 내려다보더니 짜이익 하고 찢어버린다.

바람에 날리는 현상급 포스터.

태구한테서 건네받은 지도도 꺼내서 한 번 구기더니 바다에 버린다.

바람에 테레테를 끌러가는 지도.

송 이 : 어디로 갈 거예요?

도 원 : 글썽 .... 어디로 갈까? ..... 너 가고 싶은데 있어?

송이, 한참 생각에 잠겨있다 도원을 보며 말그대 웃으며 고개 끄덕이던.

- 화염과 검은 연기가 남아있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독립군들.

나연 망원경을 들어 멀리 송이와 황야를 달리는 도원을 바라보다가

말머리를 돌리면 독립군들도 나연을 따라 말머리를 돌린다.

- 커다란 석양을 향해 말을 타고 가는 도원과 송이.

99. 황 야 / 삼국파 이디짱 2. EXT. N

거의 뜰처럼 누워 있거나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병춘이파. 휘양청 달밤에 말을 쳐다보며 병춘은 감상에 빠진다.

병 춘 : 고향에서 보던 달이랑 똑같네 .....

바람이 불고 무언가가 쪼르르 굴러온다.

떠보던 지도다. 놀라는 병춘.

부하 하나가 다가오자 일본 주머니에 감추며 자는 최 한다.

자는 최. 하다가 부하 지나가면 몰래 일어나 말고때를 잡는다.

몇 발자국 가다가 말에 오르는 병춘.

부하들을 놔두고 혼자 어디론가 떠나는 병춘.

페이드아웃.

100. 귀시장 / 할매집 INT. D

화면 밝아지면 텅 빈 할매집 안.

할매가 소파에서 졸고 있다. 무척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

창문을 통해 따뜻한 햇볕이 쬐고 있는 할매를 부드럽게 감쌀 때 어디선가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점점 가까워진다.

오토바이 소리 점점 가깝게 들리다가 딱 멈춘다.

눈은 뜨지 않은 채 할매, 태구일개? 하는 표정을 짓는데 갑자기 창문 유리창이 깨지며 무언가 방안으로 던져진다.

창이의 든 보따리. 그리고 잠시 뒤 또 하나의 사방 봉지가 똑하고 든 보따리 위에 떨어진다.

다시 오토바이 부르릉거리며 멀어지면 할매, 역시 쬐고 있는 얼굴에 친친히 미소가 번진다.

카메라 할매 얼굴에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저 멀리 귀시장을 빠져나가 별판을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

101. 대륙 별판. EXT. D

태구일개? 전혀 알 수 없는 크기로 대륙 별판을 향해 달리는 오토바이.

화면 갑자기 3등 분할되며 말을 타고 떠나는 도원. 별판을 향해 달리는 오토바이.

그리고 쓰러져 있는 창이의 창면으로 나뉜다.

경쾌한 음악 흐르며 웅덩 크헤딩.

끝

